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양안(兩岸) 농업분야 협력이 남북한 협력에 주는 시사점

2022.01.15.

지성태 · 김태은 · 최민주 · 김휘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	3
1. 국가간 경제협력의 유형	3
2. 대만 농업의 비교우위	4
3. 양안 농업분야 협력의 필요성	5
III. 양안 농업분야 협력의 성공요인 분석	8
1. 협력창구의 일원화	8
2. 포괄적 협정을 통한 협력 여건 조성	8
3. 중앙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추진	10
4.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	11
5. 대내외 정책과 연계	12
6. 협력단지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	13
IV. 남북한 '공동농업단지' 적용 가능성	17
1. 남북한 농업협력 현황	17
2.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양안 협력경험의 시사점	18
V. 양안 농산물 교역 현황	20
1. 대만의 전체 교역 동향	20
2. 양안 간 전체 교역 동향	22
3. 대만의 농산물 교역 동향	23
4. 양안 간 농산물 교역 동향	25
VI. 결론	27
참고문헌	28
부록	31

양안(兩岸) 농업분야 협력이 남북한 협력에 주는 시사점

지성태 · 김태은 · 최민주 · 김휘찬

I. 서론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와 다소 상이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의 산물인 반면 한반도와 함께 남아있는 냉전의 유산이기도 하다(공유식 외, 2017). 따라서 중국-대만과 남한-북한의 관계에서 동질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상호간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중국-대만과 남한-북한 관계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경제시스템 하에서 장기간 협력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집권당의 국정방향, 상대국의 정치·군사적 도발행위, 우방국과의 역학구도, 국제사회 집단행동 등에 의해 상호간의 관계가 좌우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만 놓고 보면, 남한에 진보정권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다가도 보수정권으로 전환되면 다시금 긴장국면에 접어들고, 거기에 북한의 핵실험 등의 군사도발 행위가 더해지면 분위기는 더욱 경색되었다. 결국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로 공동 대응하게 되면 관계 회복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역학구도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주도할 입장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도 대내외적인 많은 갈등요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만 독립’을 요구하는 정서가 대만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안의 적대적 대치 국면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를 내전형 분열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즉, 정당간의 정치·이념적 대립과 내전의 결과로 인한 갈등이다(이규태, 2011). 물론 대만 집권당에 따라 갈등의 가능성과 그 크기는 상이하다. 1992년 양안관계 전담기구인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는 ‘92공식(92 Consensus)’을 통해 ‘상호이해와 양보’의 정신에 합의했지만, 정당별, 국민 개인마다 그에 대한 수용성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92공식’을 인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민진당은 대 중국 거부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만 내 ‘92공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32.0%만이 그 존재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전가람, 2020).

중국-대만 관계가 남한-북한 관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정치적으로 주권독립성을 주장하며 중국을 자극하면서도 비정치적 교류를 중시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교류주의 혹은 신기능주의이다. 물론 대만 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양안간의 경제교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정경분리 지지자와 정부가 적극 간여해야 한다는 복리경제학 이론 지지자가 대립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전자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한편, 중국은 정치적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확고하게 주장하면서도 대만의 신기능주의를 수용하면서 오히려 양안의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대만 정치권을 압박하는 전술로도 활용하고 있다(이규태, 2001).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협력관계는 양자 간 교역과 투자규모 변화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자 간 교역규모는 2010년 1,453.7억 달러에서 2020년 2,608.1억 달러로 79.4% 증가하였다. 연평균 약 6%씩 증가한 셈이다.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는지 쉽게 이해가 된다. 2020년 중국의 對대만 수출액은 601.4억 달러인데 반해, 대만의 對중국 수출액은 2,006.6억 달러로 대만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엿볼 수 있다(中國商務部 臺港澳司, 2021). 중국은 대만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서도 대만의 신기능주의를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만 자본의 중국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대만 자본의 중국 투자액은 24.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 85.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2020년 감소하여 59.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10년 대비 138.3% 증가폭을 보였다(中國商務部 臺港澳司, 2021). 이는 중국의 대만 자본 투자 유치 노력에 따른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과 대만 내 산업간 경쟁 심화로 역외 투자처 수요 증가의 결과이다. 또한 양안 경제통합을 목표로 2010년 체결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ECFA)’도 양안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큰 전환기를 가져다주었다(전병근, 2012).

이처럼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중국과 대만 각자의 이해관계 및 제도적 뒷받침으로 양안 농업분야 협력도 진전을 보였다. 대만은 농업기술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내 시장 협소와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역외 진출을 꾀하고, 중국은 선진 농업기술 도입으로 농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상황에서 양안 농업분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각 지역에 대만농민창업단지(臺灣農民創業園)와 해협양안농업협력시험지구(海峽兩岸農業合作試驗區)를 조성하여 대만 농기업, 상인, 농민의 입주와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양안 농업분야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정책지원과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남한과 북한도 합영농장이나 시범농장 형태의 농업분야 협력모델 적용을 시도한 바가 있다. 즉, 1990년대 남한은 합영농장에서 인공씨감자 시험재배, 농업부문 공동연구,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김운근, 1998). 또한 남한과 북한의 기술적 완충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도적 농업협력사업으로 협력농장 운영이 제안되었고, 실제로 협동농장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김영훈, 2006). 이러한 형태의 협력 사업은 북한의 특정 지역이나 농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협력농장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행착오를 협력주체가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해당 협력농장의 자립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협동농장과 협력투자 방식의 농업분야 협력모델도 제안되었다. 한국의 비영리단체가 나진·선봉에 대규모 농장을 조성해 합영 형태로 주요 곡물의 공동생산,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이 시도되었다(황동언, 1998).

이처럼 대만농민창업단지, 해협양안농업협력시험지구와 유사한 협력모델이 제안되거나 실제로 추진되었으나 하나의 성공모델로 정립되어 확산되지 못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외 유사 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을 살펴보고, 상호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농업분야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

1. 국가간 경제협력의 유형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협력은 일방 혹은 쌍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방협력은 지원국과 수혜국으로 구분되고, 쌍방협력은 쌍방이 모두 지원국인 동시에 수혜국이 된다. 협력 참여주체의 구성을 통해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두 국가가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는 형태이다. 다자간 협력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며, 일반적으로 다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형태이다. 3개 국가가 참여하는 삼각협력도 다자간 협력에 속한다.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을 기준으로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과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물론 선진국과 선진국 간의 북북협력(North-North Cooperation)도 가능하다. 북남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이고,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협력 방식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무상(grant)으로 지원하는 무상협력과 차관(loan) 형태로 지원하는 유상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투자도 하나의 협력 방식으로 구분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상호간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유상, 무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다수의 협력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협력 국가들 간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대만, 남한-북한과 같이 동일 민족이면서 공통의 역사성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을 하고, 과거 식민통치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식민지 국가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1> 국가간 경제협력 유형화 지표

지표구분	내용	예) 중국-대만
협력 방향	일방, 쌍방	쌍방
협력국 구성	양자, 다자	양자
협력국 위상	북남, 남남, 북북	북남
협력 방식	무상, 유상, 투자	투자
협력국 역사성	유, 무	유

자료: 저자 작성.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간 협력은 국제개발협력이다. 농업을 포함한, 교육, 보건, 행정, 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여국, 수원국,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체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으로 지원하고, 양자, 다자, 삼자 등 협력 주체 구성이 다양하고, 북남과 남남, 유상과 무상 협력이 모두 가능하고, 협력국간 역사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유럽국가들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 식민지관계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도 협력의 형태이다. 물론 투자국의 목적성이 뚜렷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지 일자리 창출과 농업기술 보급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이 ‘조추취(走出去)’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농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한국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투자하여 곡물을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였

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보상,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 개발협력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의 협력은 양자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대만의 경제수준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북남 협력으로 분류되며, 협력 투자 방식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중국과 대만은 역사를 공유한 동일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동포의식과 통일의식이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을 ‘상생협력모델’로 규정할 수 있다.

2. 대만 농업의 비교우위

대만 농업은 그 규모만을 놓고 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019년 기준 대만 농업 GDP는 전체 GDP의 1.77%에 불과하고, 농업종사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이고, 농경지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21.8%이고, 농경지의 93.9%에 쌀 등의 단기작물을 재배한다. 농작물 중에서는 채소류와 과일류, 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작물 생산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으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KATI, 2020). 이러한 가운데 대만 농업은 집약농업, 정밀농업, 휴양농업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농업 특화구조, 높은 시장화, 선진 농업기술, 성숙한 농민조직, 양호한 생산조건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점이 중국 농업과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를 갖게 한다(程同順·李遠卓, 2018).

첫째, 대만 농업은 지역별 특성과 부존자원에 기초하여 지역화, 차별화된 농업구조를 갖고 있다. 중부지역에는 현대화된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대만 최대 규모의 유기농 채소 교역 집산지가 형성되었다. 남부지역은 열대기후 조건을 살려 열대과일 주요 산지로 발전하였다. 아리산(阿里山) 지역은 차 생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차 주산지가 되었다. 이로써 주요 산지별로 특정 품목이 특화되고 브랜드가 형성되었다. 그 외에도 농산물가공과정에서 창의성과 참신성을 발휘하고 유전자 변형 등을 통해 획기적인 신 품종을 개발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가미한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대만 농업과 연관 산업의 비교우위를 높이고 있다.

둘째, 대만의 농업기술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농업환경에서 발전하였다. 새로운 작물과 품종을 도입하거나 대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농산물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작물의 생산성을 높였다.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파인애플 밀식법, 과수 왜성 재배 등의 기술이 이미 매우 성숙한 수준이고, 축산분야에서도 자동화 사양기술, 가축질병 신속진단기술 등이 발전하였다. 그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농업기술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바이오기술과 육종기술 개발은 호접란, 카네이션 등의 관상식물을 포함한 다수의 작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벼의 경우 지방정부와 지역 연구기관의 지원 하에 다수의 교잡종이 개발되었고, 그중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면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위주로 보급하고 있다. 과일의 경우도 각종 신품종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품종 갱신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중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품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해당 상품의 시장화 수준을 높였다. 즉, 브랜드는 상품의 다양한 속성 및 그 가치를 대변하며,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가 부여

된다. 또한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미지, 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까지도 브랜드에 투영되어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대만의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화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농회(農會)¹⁾를 중심으로 한 각급 지역별 농민조직이 해당 지역의 주요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넷째, 대만의 농민조직은 매우 보편적이고 성숙하여 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농민조직에는 농회, 농지수리회(農田水利會), 농업합작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농민조직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별 농가단위로 시장에 진입할 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소농들이 협력하여 권익을 보호받기 위함이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법률, 정책, 자금과 기술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 농민조직 간의 구분이 분명하고, 조직 상호간에 협력하며, 각각의 기능이 명확하여 대만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 농민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농산물가공·저장과 같은 위탁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통한 수입, 신용사업을 통한 이자수익,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농민조직은 ‘1농가 1표’의 원칙을 통해 조직의 민주적 운영 및 자주적인 소유, 경영, 배분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다섯째, 대만의 국토면적은 크지 않지만 농업을 영위하기에 양호한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가능하다. 평원, 구릉지, 산지, 분지 등이 분포하며, 기후는 열대와 아열대가 공존한다. 그 외에 수자원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특한 자연·지리적 환경은 대만만의 특유한 비교우위 농산물 생산지로 만들었다. 농작물은 주로 대만 서부 평원지역과 구릉지에서 생산되며, 대표적인 농작물은 벼, 차, 사탕수수,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다. 대만의 연평균 기온은 24℃이고, 지역별 온도차가 크지 않다. 일조량은 대체로 충분하며, 평지의 연평균 일조량은 2,100시간이고, 산지는 1,000시간 이하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지형과 함께 지역별로 차별화된 식생대를 만들었고, 이는 곧 다양한 농업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도 다양해졌다(程同順·李远卓, 2018). 이는 생산조건이 유사한 중국 지역과의 연계에 있어 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3. 양안 농업분야 협력의 필요성

1) 대만 농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요구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지역 혹은 경제권 내에서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중국, 아세안-한국,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한국-캄보디아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

1) 농회는 진군농회, 직할시 및 현(縣)농회, 향(鄉)·진(鎭)·시·구 농회의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며, 농업인의 권익 보장, 우량종자와 비료의 보급, 회원을 위한 금융업무, 농지이용 개선, 외국의 농회조직과의 교류·협력 증진, 농산물 무역, 대만 농산물의 해외 판촉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진찬익, <http://www.nongmin.com/opinion/OPP/SWE/RPT/105283/view>).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체결되었고, 한국-중국-일본 FTA도 협상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아세안+3’의 경제·통상협력 구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세안+3’의 경제·통상협력 구도가 위협요인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만의 농산물무역에 있어서도 주변 아세안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트너국가들의 수입선 전환 및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등으로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동남아 상품이 중국에 수입될 때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외직접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산물의 교역에 있어서도 대만의 농업환경이 아세안 국가들과 유사하여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2010년 중국과 ECFA를 체결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미 대만은 對 중국 농산물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대만의 對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12.68억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23.2%를 차지하였다(左武荣, 2020).

2) 대만 농민조직 경험 전수를 통한 중국 농민전업합작사 발전

대만의 농민조직 운영은 민주적이고 규범화되었으며, 회원농가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줌으로써 농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농민조직화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물론 2006년 중국은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제정하여 농민경제조직인 합작사를 적극 육성하여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중국의 전체 농민전업합작사의 수는 19.25만 개에 달한다(産業信息網, <https://www.chyxx.com/industry/202106/956165.html>). 그러나 합작사가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표방하며 선진국 농업협동조합 혹은 기타 농민조직의 모범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농민전업합작사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및 기능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중국 정부는 기존 법을 개정하여 ‘新농민전업합작사법’을 내놓았다. 정부 유관부문의 합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합작사들 간의 연합사 조직 장려, 금융서비스 기능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만의 농회제도 등이 중국 농민조직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농민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경영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보급, 금융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통해 농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대만의 사례를 접할 수 있지만, 농업분야 협력과정에서 농민조직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다.

3) 대만 선진 농업기술을 중국 농업 업그레이드에 적용

대만은 선진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가 높아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중국은 농업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최근 농식품 수요 증가로 농업 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左武荣,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의 선진 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의지가 클 수밖에 없고, 농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만의 정밀농업, 휴양농업 등의 모델을 전수받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협력을 통해 양안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농업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선진 기술까지 도입하면 국제사회와의 기술격차를 더 빠른

기간 내에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이 열대 혹은 아열대 농작물 육종기술에 비교우위가 있어 바나나, 여지(荔枝), 아스파라거스, 호접란 등의 우량품종을 중국에 보급한다면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농업기술이 기초연구부터 시작하여 상용화되기까지 약 5~6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부터 대만에서 연구개발한 아스파라거스 품종을 1980년대 중국 복건성에 도입하여 재배함으로써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程同顺·李远卓, 2018). 그리고 대만에서 도입한 농업기술이 중국에서 적용되는 동시에 이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다.

4) 농업협력을 통한 양안 교역 활성화

대만은 중국에 비해 일부 농업기술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중국에서도 곡물, 경제작물, 목재 등 많은 원료 농산물과 임산물을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대만산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중국 측의 많은 정책적 우대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대만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농업의 산업 규모가 작고 생산비용이 높아 국제시장에서 그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시장을 완전 개방하면 저렴한 중국 농산물의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ECFA 체결 당시에도 중국 측이 대만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만에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兩岸網, 2010). ECFA의 '조기 수확 리스트'에서 중국은 539개의 대만 상품을 개방했고, 그중 18개의 농산물도 포함되었다. 한편 대만은 267개 중국 상품을 개방했고, 그중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다(左武榮, 2020). 오히려 중국 측에서는 대만 농기업, 상인, 농민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농업부문에 투자할 것을 장려했다. 즉, 중국이 대만 농업계에 광활한 투자공간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대만으로 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대만 선진 농업기술의 중국 도입, 대만 농업계의 중국 내 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그 어떤 분야보다 농업협력이 양안 교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양안의 농업분야 교류가 활성화되면 농업자원이 더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농산물 교역도 확대되어 양안 농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양안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만 내에서는 양안 농업분야 협력을 경계하는 의견도 한다. 즉, 중국이 시험지구를 통해 대만의 우량 품종과 기술이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면 중국 농산물 수입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의 합작사나 생산·판매조직의 경영모델이 중국에 전수되어 농업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상호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대만 기업이 중국 농업부문에 투자할 경우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미중무역 갈등 등의 대내외적 위협요인으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하고 경쟁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농업 과학기술 R&D를 통해 신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중국으로 이전되는 종자와 기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상호보완성보다 경쟁성이 큰 농산물에 대해 시장개방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DNA 분자와 원소 분석을 통한 검증기술을 강화하여 원산지 확인 및 식별에 적용한다. 대만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산 농산물의 다양한 이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周妙芳, 2008)

Ⅲ. 양안 농업분야 협력의 성공요인 분석

1. 협력창구의 일원화

중국 중앙정부에 대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중공중앙대만공작관공실(中共中央臺灣工作辦公室),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이 있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도 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만사무관공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농업농촌부에는 대만 농업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만농업사무관공실을 설치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농업분야 협력은 농업농촌부가 소관부처인 해협양안농업교류협회(海峽兩岸農業交流協會, 이하 '협회')가 그 창구역할을 한다. 협회는 2001년 국무원의 동의를 얻고 민정부(民政府)의 비준을 얻어 설립되었으며, 양안의 농업분야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국가 1급 협회이다. 협회는 '비교우위를 통한 상호 보완, 상호 이익, 공동 발전'의 원칙하에 양안 농업분야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을 공고히 하고, 양안 농업자원 이용을 최적화함으로써 대만과 중국의 현대농업 건설과 농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의 주요 임무는 대만 농업계 사회단체, 기업과 관련 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양안 농업계 인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조직하고, 관련 회의와 전시회를 주관한다. 농업농촌부의 위임을 받아 협회 명의로 양안 관련 농업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농업 교류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양안 농업 과학기술과 경제협력을 위해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관부문을 지원하여 농업 교류와 협력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건의한다. 그 외에 업무 주관부문이 위탁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gwym/201610/t20161012_11590795.htm).

그리고 농업농촌부 대만농업사무관공실(對臺灣農業事務辦公室)을 지원하여 17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9개 '해협양안농업협력시범지구'와 28개 '대만농민창업단지'를 조성하고, 복건농림대학에 '해협양안농업기술협력센터(海峽兩岸農業技術合作中心)', 하문(廈門)의 '해협양안농업교류협회기술교류와 정보자문업무위원회(海峽兩岸農業交流協會技術交流與新息諮詢工作委員會)'와 '대대만농업교류협력기지(對臺農業交流合作基地)', 온주(溫州)의 '대만농업기술교류보급센터(臺灣農業技術交流推廣中心)' 등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양안 농업분야 협력이 협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침에 기초해 대만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기반으로 추진되는 시범지구와 창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율을 담당한다. 이처럼 농업분야 협력창구가 일원화됨으로써 협력사업의 분절화와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포괄적 협정을 통한 협력 여건 조성

2010년 대만은 중국과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협력협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EI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동아시아경제통합의 논의에서 배제되는 상황이었고, 동아시아경제통합협정에

가입하지 못하면 대만 경제의 미래가 주변화(marginalization)된다는 우려 속에 중국과 ECFA를 체결하였다(전가림, 2014). ECFA는 상품무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는 물론 서비스무역개방, 투자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다(이원근, 2015). 양안은 더 나은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ECFA 이행에 모두 적극적이었다.

ECFA 이행 기간 양안 경제무역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양안 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양안 무역액은 2010년 1,454억 달러에서 2020년 2,608억 달러로 79.4% 증가했다. 동기간, 대만의 對 중국 수입액은 297억 달러에서 601억 달러로 102.6%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만의 전체 수입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對 중국 수출액은 1,157억 달러에서 2,007억 달러로 73.4%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만의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한다(中共中央臺辦·國務院臺辦, 2021). 이처럼 ECFA 체결 이후 양안 간 무역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둘째, 양안 교역 중 농산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2010~2019년 양안 농산물 교역액은 14.1억 달러에서 33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동기간 대만의 對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2.5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로 349.4% 증가했으며, 중국의 對 대만 수출액은 11.6억 달러에서 21.8억 달러로 87.7% 증가했다. 중국은 이미 대만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이 되었다(徐芬麗, 2020). 또한, ECFA는 중국의 대만농민창업단지, 해협양안 협력시범지구 조성을 통해 대만 자본의 중국 농업부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 외에도, ECFA는 양안 농업부문 교류를 위한 플랫폼 형성을 촉진하였다. 예를 들어, ECFA 신시대를 맞아 복건성이 주도하고 광둥성, 강소성, 절강성, 상하이, 강서성, 안휘성, 호남성 등이 참여하여 동남권 과학기술협력연맹을 조직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복주(福州)에서 ‘해협양안농산물박람회(海峽農產品博覽會)’와 ‘해협양안농업과학기술협력고위급포럼(海峽兩岸農業科技合作高峰論壇)’을 개최하고, 장주(漳州)에서는 ‘해협양안화훼전시회(海峽兩岸花卉展)’가 개최됨으로써 양안의 농업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王紅玲, 2015). 셋째, 관세 인하 혹은 철폐로 인해 양안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되었다. 2018년 6월 말까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관세 감면 총 누적액은 약 318.6억 위안이고, 중국이 對 대만 수출과정에서 얻은 관세 감면 혜택은 약 5.1억 달러이다(百度, <https://baijiahao.baidu.com/s?id=1666805663205696093&wfr=spider&for=pc>). 넷째, 양안 간 가치사슬 형성으로 상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대만의 對 중국 투자액은 5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5%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대만이 협력 파트너국가를 대양주, ASEAN, 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은 전자산업, 농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어 상호간에 투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騰詢新聞, <https://xw.qq.com/cmsid/20210120A09QN600>).

이처럼 교역,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정인 ECFA가 이행되고 있어 양안의 농업부문을 포함한 각 부문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ECFA가 큰 역할을 하였다(武力超 외, 2015).

3. 중앙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추진

중국 정부는 대만과 농업분야 협력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규를 마련하였다. 1994년 이미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대만 기업, 상인과 농민의 중국 내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7년 1월 11일 국무원 대만 사무관공실을 비롯한 유관부처들이 공동으로 ‘양안 농업 협력, 대만 농민 우대 촉진에 관한 약간 정책조치(關於促進兩岸農業合作,惠及臺灣農民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되면서 중국 내 투자 환경이 더욱 성숙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협양안협력시험지구와 대만농민창업단지 건설에 한층 더 힘쓴다. 둘째, 양안 농업 협력과 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협력분야를 확대한다. 셋째,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양안 농산물무역과 대륙에서 대만 농기업 상품 유통을 원활히 한다. 넷째, 대만 농산물 지식재산권 및 대만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양안 농업 협력, 대만 농민 우대 촉진에 관한 약간 정책조치’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행정허가법’,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과 그 실행세칙, ‘도농 자영업자 관리 임시 시행조례(城鄉個體工商戶管理暫行條例)’, ‘개별 상공업자 등기 절차 규정(個體工商戶登記程序規定)’ 등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 16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이 유관부처와 함께 ‘대만 농민이 해협양안농업협력시험지구와 대만농업창업단지에서 개별 상공업자 등록 관리 업무에 대한 약간 의견(臺灣農民在海峽兩岸農業合作試驗區和臺灣農民創業園申辦個體工商戶登記管理工作的若干意見)’을 제정하였다. 이 의견이 발표되면서 199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시험지구’와 ‘창업단지’ 조성과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 28일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 공상총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대만주민의 개별 상공업 신청과 설립 개방에 관한 통지(關於開放臺灣居民申請設立個體工商戶的通知)’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대만주민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복건, 호북, 광둥, 중경, 사천 등 9개 성(시)에 개별 상공업을 신청하여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中共中央臺辦·國務院臺辦, 2012).

그리고 중국 정부는 대만과의 농산물교역에 있어서도 대만 측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유관 부처는 대만산 수입 농산물의 중국 내 유통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조치를 제시하였다. 2005년 6월 1일 ‘대만산 과일의 편리하고 신속한 검역 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關於對來自臺灣水果實施便捷檢疫措施的通知)’를 발표하여 대만산 과일 수입 시 검역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였고, 2006년 4월 19일 ‘대만 과일, 채소와 수산물 반입 종류 확대 관련 공고(關於擴大臺灣水果,蔬菜和水產品准入種類的公告)’를 발표하여 중국으로 반입 가능한 대만산 과일과 채소의 수를 늘리고, 대만산 수산물 수입 시 밍아야 하는 수속을 보다 간소하였다. 2009년 12월 22일에 양안 쌍방이 ‘해협양안농산물검역합의(海峽兩岸農產品檢驗檢疫合作協議)’를 통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CFA의 조기 수확 명단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8개의 대만산 농산물이 포함되어 점차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중국 측의 우호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4.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

양안 농업분야 협력은 정부차원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결국은 대만과 중국 지방정부 혹은 대만 투자 주체(기업, 농민 등)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시범단지과 창업단지 조성은 해당 지방의 수요, 비교우위,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 대만 지방정부 혹은 기업은 외연 확장의 목적으로 對 중국 농업분야 투자를 고려할 것이고, 중국 지방정부는 대만의 선진 기술 도입에 따른 지역 농업 발전 및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고 투자를 유치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복건성은 대만과의 협력에 있어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유사한 기후대에 분포하고 있어 동질성을 갖고 있다. 차(茶)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8년 기준, 복건성의 차잎 생산량은 40.16만 톤이고 차잎 생산가치는 257.36억 위안으로 귀주성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前瞻產業研究院, 2019). 이러한 가운데 복건성은 품종, 기술, 설비, 기계, 경영관리, 브랜드와 마케팅 방면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의 차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국제 차시장 개척, 차산업의 가치사슬 확장 및 강화, 품질안전 인증과 원산지 표시제 상호 연계, 차농원 중심의 휴양농업 발전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劉宇峰, 2015).

복건성 정부는 대만과 농업분야 협력과 교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였다. 2009년 양안 농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첫 번째 법규인 ‘복건성과 대만 농업 협력 촉진 조례(福建省促進閩臺合作條例)’를 제정하였고, 2011년 ‘대만 농민 창업단지 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關於加快臺灣農民創業園建設的若干意見)’, 2013년 ‘복건성과 대만 농업 협력 심화에 관한 약간 의견(關於進一步深化閩臺農業合作的若干意見)’ 등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기금을 지원하고, 재정과 세무에 있어 특혜를 제공하였고, 용지 사용에 있어 우대혜택을 주었고, 금융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통해 복건성과 대만 농업 협력을 추진하였다(劉宇峰, 2015).

복건성 외에도 사천성, 하남성, 강소성 등 지방정부는 대만기업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원 범위과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반시설 건설, 재정 투입, 토지사용, 세금 우대, 담보와 보험, 공공서비스 등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지역별 대만농민창업단지에 대한 우대정책

복건성		사천성 ^{주1} (신진, 新津)	하남성 ^{주2} (초작, 焦作)
2014년 ^{주3}	2018년 ^{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농민창업단지 건설 추진 농산업 협력과 연계 심화 중요 품종과 기술 도입과 시범적 보급 농업 과학기술 협력 장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과 세금 지원 실시 용지 우대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농민창업단지 건설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 발전 추진 산업 연계 강화 및 산업 융합 심화 시범 보급 강화 및 특색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강조 및 대만 청년 창업 유도 초기 참여 집단 부각 및 민간 왕래 확대 대만 농민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경영권 양도 보조금(임차료 보조) 투자 발전 장려금(1회성) 시설농업 보조금(1회성) 정밀가공과 향촌관광업 정책(투자 유치 정책 참조) 생산용 전기 우대혜택(표준단가의 30%) 과학기술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지원(대만농민창업단지 내 물, 전기, 도로 등) 재정 지원(기업 투자 유치, 과학기술 훈련, 토지 사용권 양도 보조, 사업 이자 보조 등) 토지 사용(고정자산 투자액에 근거해 지원 규모 결정) 세금 우대(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험서비스 강화 • 협력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락한 향토사회 조성 • 업무 시스템 완비 및 업무의 안정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1회성, 신품종과 신기술 보급) • 현금 수수료 감면(윈스톱 서비스와 행정비 최소화) • 세대 진입과 학교 입학 편의(인재 초빙 우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 등) • 담보와 보험(기업 대출 담보 및 정책성 농업보험료 보조) • 공공서비스(윈스톱 서비스, 우수한 전문가 영입 지원 등)
---	---	---	---

주1: 사천성 신진의 대만농민창업단지의 8대 우대정책(四川新津臺灣農民創業園對臺招八條優惠政策) 참조.

주2: 하남 초작수무 대만농민창업단지 우대정책(河南焦作修武臺灣農民創業園優惠政策) 참조.

주3: 복건성 인민정부의 복건성-대만 농업 협력 심화에 관한 약간 의견(福建省人民政府關於進一步深化閩臺農業合作的若干意見) 참조.

주4: 복건성 농업청 판공실의 2018년 하달한 복건-대만 농업 협력 교류 업무 요점에 관한 통지(福建省農業廳辦公室關於印發2018年閩臺農業合作交流工作要點的通知) 참조.

자료: 저자 작성.

5. 대내외 정책과 연계

중국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경제협력 가치가 높은 소위 ‘연선국가(沿線國家)’를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충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 국경 지역과 낙후한 내륙지역의 경제개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다(오대원, 2018). 중국 측에서는 대만의 일대일로 참여에 매우 긍정적이다. 일대일로의 일환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조성을 위해 중국의 자유무역 지구와 대만의 자유경제 시범 구역을 매개로 한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해상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금융, 해외투자, 지역 안보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일대일로는 양안 중소기업의 협력 기회가 되고, 중·서부지역 개발 등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기업 및 시장과의 연계도 점차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대만 기업은 육상 실크로드와 연계된 중·서부지역에 투자함은 물론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된 복건성 지역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다(蕭衡鍾, 2020). 대만 측에서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일대일로에 협력하는 것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만이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에서도 일대일로 전략 하에서 중국과 대만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건성, 광둥성 등 일대일로 핵심지구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에서 대만과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다. 투자 단계에서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모델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사회자본을 투입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현대농업, 시설농업, 용두기업 육성, 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을 실현할 수 있다. 대만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인터넷기술+특색농업’ 등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농업협력자유무역지구’를 운영함으로써 양안의 농산물무역 활성화 및 투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崔景漢 외, 2015). 과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서방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던 당시 주요 교역품목이었던 차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전략 하에서 중국(복건성)과 대만의 해당 산업의 협력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劉宇峰, 20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 대만 기업의 투

자를 기초로 추진되고 있는 ‘시험지구’와 ‘창업단지’는 일대일로 전략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건성은 ‘일대일로’ 전략 하에 핵심지역으로 창업단지 발전을 선도하면서 양안 농업협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업협력을 통해 중국과 대만이 윈-윈(win-win)하는 전국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崔景漢 외, 2015).

중국은 2018년 ‘향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關於實施鄉村振興戰略的意見)’을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과 ‘국가 향촌진흥전략 기획 2018-2022년(國家鄉村振興戰略規劃(2018-2022年))’을 발표함으로써 농업·농촌·농민 문제가 복합된 소위 ‘삼농문제(三農問題)’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 버전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산업 발전(產業興旺), 생태계 안정(生態宜居), 향토평속 현대화(鄉風文明), 효율적 거버넌스(治理有效), 풍요로운 생활(生活富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처럼 향촌진흥전략은 농업, 농촌, 농민을 포함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협력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향촌진흥전략 하에서 양안이 협력할 경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양안 협력을 통해 농업자원, 농산물무역, 농촌 거버넌스 경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대농업 실현 및 농촌의 1·2·3차 융합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이 된다(伍曉軍, 2018; 高孟菲, 2019). 이 점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시험지구’, ‘창업단지’ 모델과 접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6. 협력단지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중국 정부가 양안 농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대만 농민과 투자자가 중국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양안농업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대만 농민과 투자자는 토지 임차, 조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농업부(현 농업농촌부)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하였고, 2005년부터 복건성 장주시(漳州市)漳浦縣(장포현)에서 시범사업이 개시되었고, 2008년 장평영복(漳平永福)대만농업창업단지가 건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28개의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양안 농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대만 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은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업 선진기술과 발전모델의 유입 및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94년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이 반포된 이후, 1997년부터 양안 농업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해협양안농업협력시험지구(이하 ‘시험지구’)가 지역별로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그 수는 총 9개이다. 시험지구는 양안 농업분야 협력을 통해 “탐색, 창구, 시범과 확산”을 기본 목적으로 조성되었다(劉澈元 등, 2014). 시기적으로 양안의 농업분야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대만과의 협력에 있어 다른 지역 대비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복건성을 필두로 하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지구가 조성되었다. 즉, 복건성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대만에서 본적이 중국 복건성인 인구가 80%를 넘을 정도로 혈연적으로도 친밀하고, 대만의 민속, 신앙, 희곡, 예술 등의 문화가 복건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만과 복건성의 접근성이 좋고 혈연과 문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었기에 상호간의 교역이 매우 활발했으며, 청조 때까지도 대만이 복건성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地緣近, 血緣親, 文緣久, 商緣廣, 法緣久)(林增榮, 2008).

〈표 3〉 대만농민창업단지 현황

순 번	지역		설립 연도	사업부문	취급 품목
	성	현			
1	복건성 (福建省)	장포현 (漳浦縣)	2006	과학기술서비스, 창업인큐베이 팅, 농업박람회, 농산물가공, 물류	화훼(난초), 과 일·채소, 찻 잎, 어류, 버섯
2		혜안현 (惠安縣)	2011	R&D관리, 농산물무역, 향만물 류, 관광농업	과일·채소, 수 산물
3		복청시 (福清市)	1997 (2011)	농림산물 가공, GAP 표준화, 생태관광농업, 과학기술, R&D 관리	과일·채소, 가 축, 수산, 화훼 ·묘목, 약재
4		청류현 (清流縣)	2009	농림산물 가공, 생태관광	화훼·묘목, 가 축
5		선유현 (仙游縣)	2007 (2009)	대학생 창업, 관광농업	과일, 화훼·묘 목, 임산물(녹 나무)
6		장평현 (漳平縣)	2006 (2008)	찻잎가공, 청년 취업·창업, 녹 색식품, 관광농업	찻잎(우롱차)
7	강소성 (江蘇省)	염도구 (鹽都區)	2010	R&D관리, 창업인큐베이팅, 농 산물가공, 관광농업	화훼·묘목, 과 일·채소
8		회음구 (淮陰區)	2009	농산물가공, 물류산업, 관광농 업, R&D관리	벼, 화훼, 과일 ·채소
9		석산구 (錫山區)	2008	과학기술, 농업박람회, 관광농업, 바이오 농업, 스마트농업	화훼, 과일·채 소, 벼
10		강녕구 (江寧區)	2008	과학기술, 농산물가공, 물류, 관 광농업, 바이오, R&D관리	화훼, 약재
11	절강성 (浙江省)	자계시 (慈溪市)	2010	농산물가공	채소, 가축, 버 섯
12		선거현 (仙居縣)	2009	R&D관리, 관광농업	화훼·묘목, 과 일·채소, 약재
13		창남현 (蒼南縣)	2009	농산물무역, 관광농업, 농부산물 가공	과일·채소, 수 산
14	사천성 (四川省)	신진구 (新津區)	2006	창업인큐베이팅, 과학기술, 관광 농업	채소
15		염변현 (鹽邊縣)	2009	과학기술, 농산물가공, 물류	과일
16	흑룡강성 (黑龍江省)	서안구 (西安區)	2017	과학기술, 농산물가공, 물류, 생 태관광	과일·채소, 화 훼, 가축, 수산, 벼
17	하남성 (河南省)	수무현 (修武縣)	2011 (2012)	생태관광, 축산물가공	화훼·묘목, 과 일·채소, 가축
18	산둥성 (山東省)	서하시 (栖霞市)	2006	관광농업, 창업인큐베이팅	과일(포도), 와 인
19	광서성 (廣西省)	흠남구 (欽南區)	2011	농산물가공, 물류, 관광농업, R&D관리	과일·채소, 화 훼·묘목
20	호남성 (湖南省)	악양현 (岳陽縣)	2009	농산물가공, 관광농업, 창업인큐 베이팅	과일·채소, 화 훼, 가축, 수산
21	호북성 (湖北省)	황피구 (黃陂區)	2008	농산물가공, 물류, 관광농업	과일·채소, 수 산, 화훼·묘

순번	지역		설립연도	사업부문	취급 품목
	성	현			
					목, 축산
22	운남성 (雲南省)	석림이족자치현 (石林彝族自治縣)	2008	창업인큐베이팅, 관광농업, 과학기술, 농산물가공, 물류	과일·채소, 화훼
23	중경시 (重慶市)	북배구 (北碚區)	2006	R&D관리, 농업관광, 농산물가공, 과학기술	과일·채소, 화훼·묘목
24	안휘성 (安徽省)	화현 (和縣)	2009	친환경식품, 농산물가공, 창업인큐베이팅, 물류, 과학기술	채소, 가축
25		여강현 (廬江縣)	2010	관광농업, 과학기술	벼, 화훼·묘목
26	광둥성 (廣東省)	금만구 (金灣區)	2008	과학기술, 친환경 농업, 창업인큐베이팅, 관광농업	과일·채소, 화훼
27		매강현 (梅江縣)	2010	농산물가공, 관광농업, 전자상거래, 창업인큐베이팅, 과학기술	차잎, 묘목
28		조남구 (潮南區)	2010	창업인큐베이팅, 과학기술, 생태관광, 스마트농업, 친환경 농업	과일·채소, 화훼·묘목, 수산, 축산

주: ()안의 연도는 농업부(현 농업농촌부) 등으로부터 대만농민창업단지로 인가를 받은 해임.
자료: 저자 작성.

<표 4> 해협양안농업협력시험지구 현황

순번	지역		설립연도	주요 사업내용
	성	현		
1	복건성 (福建省)	전역	1997	- 어업, 원예업 교류 협력 - 현대원예업, 어업협력 시범구 조성 - 농산품 물류기지, 종묘연구개발 및 번식기지 건설
2	광둥성 (廣東省)	불산시(佛山市)	2006	- 하이테크 및 외향형 농업 발전; 화훼묘목, 우량어종의 생산가공, 우량채소, 관광농업 등 산업벨트 조성.
		담강시(湛江市)	2006	- 열대과일, 사탕수수, 채소, 화훼 우수품종 및 선진기술 도입; 근해어업과 목축업 분야 협력
3	광서장족자치구 (廣西壯族自治區)	옥림시(玉林市)	2006	- 농업생산 시범기지 건설 - 우량 벼, 아열대 과일, 채소, 식용균, 한약재, 화훼, 녹차 등 산업벨트 발전 - 농산품가공 협력
4	해남성 (山東省)	전역	1999	- 우량 열대과일, 화훼품종 및 핵심기술 도입, - 해남-대만 농업과학기술교류센터와 해남-대만 농업협력교류협회 설립
5	산둥성 (山東省)	평도현(平度縣)	1999	- 대만자본과 핵심기술 도입 - 대만기업식품가공단지 건설 - 특화농산품가공업 발전을 중심으로 대만식품가공업체 유치
6	섬서성 (陝西省)	양령농업고신기술산업시범구 (楊凌農業高新技術產業示范區)	2000	- 농업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 섬서-대만간 농업학술 및 과학기술행사 정기개최 - 바이오엔지니어링, 유전자변형 기술 등 하이테크 도입 - 대만의 자본과 농업기업 유치
7	흑룡강성 (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 목단강시(牡丹江),	1999	- 농산품가공 시범단지 조성 - 주요 농산품가공업 발전

순번	지역		설립 연도	주요 사업내용
	성	현		
		가목사시(佳木斯), 대경시(大慶), 농간시범구(農墾示范區)		- 농기계 개발 및 생산 협력
8	상해시 (上海市)	남회구(南匯區), 봉현구(奉賢區), 금산구(金山區), 송강구(松江區), 청포구(青浦區), 가정구(嘉定區), 송명현(崇明縣)	2006	- 충밍도를 중심으로 난후이, 평셴 등지의 현대농업단지 조성 - 종자, 하이테크, 농산품 정밀가공, 생태관광, 농산품 물류, 집산, 전시 등 중점 육성
9	강소성 (江蘇省)	곤산시(昆山市), 양주시(揚州市)	2006	- 농업바이오기술, 고효율 화훼원예산업과 수산양식업, 농산품 정밀가공, 농업물류 등 발전 - 돼지 우수품종 번식단지, 어업과학기술 시범단지, 화훼과실단지, 유기농 벼 재배단지, 유기농 채소단지, 생태농업 레저단지 등 조성 - 유기농 농업 연구개발센터 건설

자료: 양평섭 외(2012)를 기초로 저자 작성.

창업단지와 시험지구 모두 복건성을 시발점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복건성 출신 대만 상인의 고향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한몫을 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양안 간의 인적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대만 상인의 중국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고, 투자처를 모색하였다. 아마도 출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아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에 그 지역을 협력 대상으로 선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대만 상인 이서하(李瑞河)는 자신의 고향인 漳浦縣(장포현)에 돌아와 ‘천복그룹(天福集團)’을 설립하여 10여 개의 자회사와 차 관련 상품 가공공장을 설립하였고, 중국 전국에 1,400여 개의 찻잎 직거래 체인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천복차박물관(天福茶博物館)’을 설립하고, ‘당산과대만’이란 찻잎 관광휴양 석조 농원을 만들어 중국의 초기 농업관광 시범지가 되었다. 또한, 2억 위안을 투자하여 전국 제1의 차산업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였다(劉宇峰, 2015).

1990년대 말에는 더 많은 대만인들이 복건성을 방문하면서 대만의 차 주산지인 아리산(阿里山) 지역의 자연조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만의 우수한 차 품종을 들여와 적응성 실험도 하고 우량 품종은 보급하였다. 또한 대만의 차 재배, 가공, 품질 감별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도를 받았고, 차농원 관리도 완전히 대만모형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창업단지와 시험지구는 복건성을 기점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장평(漳平)에 창업단지가 설립되면서 ‘대륙의 아리산(阿里山)’으로 불리며 대만 상인들을 유치하여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고 대만과 차(茶)관광농업, 차휴양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창업단지 시범모델의 역할을 하였다.

결국, 창업단지와 시험지구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협력모델이 발굴되고 대만기업 운영이 안정화되면 그 성과와 모델이 해당 성 내에서 혹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삼농문제 해결 및 향촌진흥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대만기업의 중국 농업·농촌부문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V. 남북한 ‘공동농업단지’ 적용 가능성

1. 남북한 농업협력 현황

과거 남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농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식량지원의 경우 유상과 무상, 직접지원과 국제기구 경유, 인도적 차원과 개발협력 차원 등으로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하였다. 김영훈 외(2015)에 따르면 1995~2010년 차관을 통해 유상으로 지원한 식량은 260만 톤(8,728억원)이고 무상으로 지원된 식량은 76.6만 톤이다. 2000년대 추진된 농업협력사업의 경우 협동농장, 종자분야, 농업과학기술, 개별 농업협력, 산림분야,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합의된 농업협력도 이상 6개 범주에 포함된다.

<표 5> 2000년대 기 추진했거나 합의한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구분	2000년대 추진한 농업협력	2000년대 합의한 농업협력
협동농장 협력	금강산,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 영농기술 지원
종자분야 협력	옥수수 신품종 개발 지원 씨감자 생산기술 및 생산기반 확충	종자생산시설 지원 종자의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농업과학기술 협력	북한 농업과학원과 공동연구 추진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민간) 개최	유전자원 교환·공동연구 유전자원 저장고 설치 육종·재배기술 협력 생물농약 개발, 생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 예보 등 IPM 기술 협력 검역 및 방역기술 협력
개별 농업협력	농림축산분야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작 협력
산림분야 협력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묘목 지원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복구 및 녹화

자료: 김영훈 외(2019a).

민간 차원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의 사업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NGO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식량 공급 증대(감자 재배 확대, 우량종자 공급, 수확 후 손실 감소), 농업 기반 복구(홍수 피해지 복구, 제방 복구, 간이 관개시설 구축, 축산 지원(소가축 농가 지원, 소가축 사육시스템 구축, 잠업 개발), 산림복구 및 환경보호(산림 복구 및 녹화, 양묘장, 산림 병해충 방제),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농촌 에너지 개발, 풍력에너지 개발), 농촌환경 개선(지붕 개량, 아궁이 개량), 취약계층 지원(식량 지원, 소농장-KIT), 공동영농단지 협력 등을 포함한다(김영훈 외, 2012).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남북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농업분야를 포함한 협력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대만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만농민창업단지’, ‘해협 양안농업협력시험지구’ 추진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이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갖춘 ‘공동영농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김영훈 외, 2019b; 이상준 외, 2012). 즉, 남북한

접경지나 북한의 특구 배후의 농촌지역에 소위 ‘공동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각종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업기술교류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대만농민창업단지 조성에 중국과 대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각의 농업·농촌부문이 상호보완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만이 농업기술과 투자역량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다면, 중국은 선진 농업기술 수용력, 풍부한 농업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농업단지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 농업체계’를 구축하면, 남북한 농업협력에 있어 그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장경호(2011)는 남북한 농업분야 상호보완성을 농업생산과 연계된 전·후방산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농업생산, 후방산업, 전방산업 분야의 상호보완성은 각각 농산물생산, 영농자재산업, 유통·가공산업의 역할분담과 분업생산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대만 농민창업단지의 사례에서처럼 남한과 북한의 농업분야 여건과 각각의 비교우위가 상이하여 이를 적절히 결합하면 다양한 협력모형을 발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생산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생산여건 측면에서 각각 수도작(쌀)과 밭작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분업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영농자재산업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기술력과 저렴한 생산비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 조립라인과 채종포를 북한에서 운영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에서는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원료 공급지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결합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고, 남한의 수출시장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다(장경호, 2011).

2.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양안 협력경험의 시사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과 같은 지속적이면서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대만과 중국도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적지 않지만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의 단절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농민창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만과의 농업분야 협력과 투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 이러한 양안의 성공적인 협력경험을 통해 향후 남한과 북한의 농업분야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대만농민창업단지와 유사한 ‘공동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협력모형을 실천한다. 기술서비스, 생산, 가공, 유통·물류를 포함한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협력이 가능하고, 생태, 관광, 바이오, 스마트 등을 테마로 한 다양한 농업협력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갖춰 농업·농촌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북한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시험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공동농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조건이다(지성태, 2020). 즉, 협동농장 운영과 공동농업단지 조성의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둘째,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공동농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한다. 대만농민창업단지의 경우도 대만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북건성, 강소성, 절강성, 광둥성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물론 물리적 거리 외에도 혈연적, 문화적 친밀도 등의 심리적 거리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준공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는 남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강원도에 위치하므로 축산분야

투자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한 축산업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김영훈 외, 2019b). 셋째,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북한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한 농업협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이때 단일한 협력창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수의 협력주체가 참여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간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아 결국은 예산 낭비,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분절화(fragmentation)는 한국 국제개발협력(DAC)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도묘연 외, 2019). 공동농업단지를 조성하면 투자와 협력사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분절화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 넷째,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의 긴장과 위협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위협요인 관리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다시 말해, 북한과 관련된 경제협력 사업은 반드시 ‘통일부’의 승인·허가가 필요하며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 만약 통일부의 승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제28조 2항)에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7조)을 부과한다(이규태, 2011). 현재로써는 그 실현이 요원하지만,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 혹은 ‘대만산 과일 편리하고 신속한 검역 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와 같은 매우 과격적인 법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 다섯째, FTA와 같은 포괄적 협정 및 대내외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기 체결된 남북한 농업협력 관련 합의서는 ‘6·15선언(2000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년)’, ‘10·4선언(2007년)’과 그 후속으로 진행된 남북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원회 등을 포함한 다수가 존재한다(김영훈 외, 2019b).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합의사항을 이행하더라도 그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FTA와 같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 및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대만농민창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양안 농업분야 협력경험을 기초로 <표 5>와 같이 남북한 ‘공동농업단지’ 구상이 가능하다.

<표 6> 남북한 ‘공동농업단지’ 구상

구분	내용
협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공-유통·물류-수출 등 농업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 - 농업의 전·후방산업으로 확장 가능 - 농업·농촌 창업 인큐베이팅과 바이오, 스마트, R&D 등 첨단농업 분야 -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
입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 잠재력이 큰 거점 협동농장 - 세포등판 등 기존 개발사업지구 - 비무장지대, 남북한 접경지대 - 시장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농촌지역
협력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정부는 기반조성지원사업 및 관련 법과 제도 수립 - 기업, 단체, 농가, NGO 등 민간부문이 투자 및 교역
협력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공동농업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 중장기 ‘공동농업단지’ 조성 확대 및 운영모델 다각화
협력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자료: 저자 작성.

V. 양안 농산물 교역 현황

양안은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ECFA 체결을 통해 양국의 농산물 교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양안 농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0년 ECFA 체결 전후 대만의 전체 교역과 농산물 교역, 양안의 전체 교역과 농산물 교역의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대만의 전체 교역 동향

대만은 순수출국으로 전체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대만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순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 순이다. 대만의 수출과 수입의 대상국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의 비중은 각각 29.7%와 22.2%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이 대만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대만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주요 대상국	수출액	비중	주요 대상국	수입액	비중
1	중국	1,024.5	29.7	중국	635.9	22.2
2	미국	505.5	14.6	일본	459.0	16.0
3	홍콩	489.4	14.2	미국	325.1	11.4
4	일본	234.0	6.8	한국	206.1	7.2
5	싱가포르	190.8	5.5	독일	101.8	3.6
6	한국	151.4	4.4	말레이시아	98.9	3.5
7	베트남	105.2	3.0	싱가포르	89.9	3.1
8	말레이시아	94.6	2.7	호주	80.6	2.8
9	네덜란드	60.5	1.8	네덜란드	65.6	2.3
10	독일	60.4	1.7	베트남	55.0	1.9

자료: 대만 해관 수출입통계(<https://portal.sw.nat.gov.tw/APGA/GA35>).

2005~2020년 대만 무역 동향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세계 경제위기, ECFA 체결, 대만 내 정권 교체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8>과 <그림 1>을 통해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이 대만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8>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만의 수출입액의 추이를 나타내고, <그림 1>에서 ECFA 체결, 세계 경제위기와 주요 정당의 집권 시점을 도식화하였다.

대만의 전체 수출액은 2005년 1,984.3억 달러에서 2020년 3,451.3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던 시기와 2015년 민진당 집권 직전에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2010년 ECFA 체결 이후 수출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2016년 이후 빠른 증가추세로 전환하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5~2008년 연평균 8.81%, 2010~2014년 연평균 3.38%, 2016~2020년 연평균 5.45% 증가했다.

대만의 전체 수입액 추이도 수출액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05년 1,826.1억 달러에서

2020년 2,861.5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즉, 세계 경제위기와 민진당 집권 시점을 전후하여 수입액이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5~2008년 연평균 9.61%, 2010~2014년 연평균 2.19%, 2016~2020년 5.70% 증가했다.

대만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ECFA 체결에 따른 조기수확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EHP)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는 ECFA 체결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어, 그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수확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조기수확프로그램은 양안 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상호 합의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제도이다. 대만은 중국에 비해 조기수확 품목의 개방 폭을 줄임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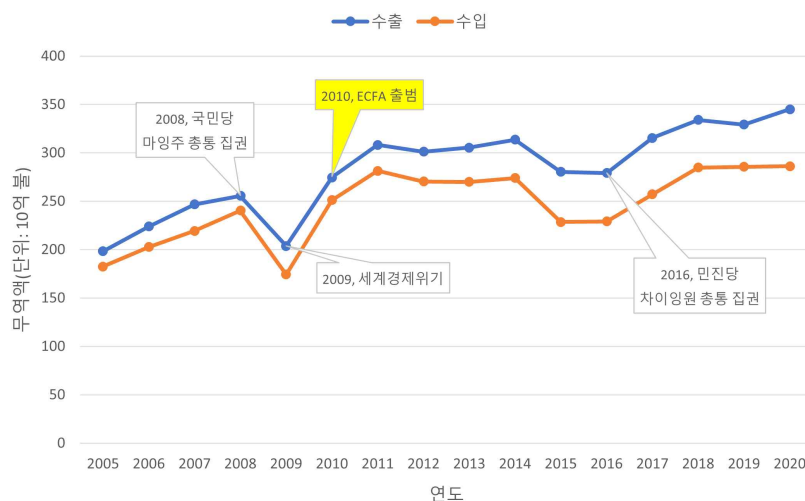
<표 8> 대만의 전체 교역 현황(2005-2020)

단위: 억 달러

연도	수 출	수 입
2005	1,984.3	1,826.1
2006	2,240.2	2,027.0
2007	2,466.8	2,192.5
2008	2,556.3	2,404.5
2009	2,036.7	1,743.7
2010	2,746.0	2,512.4
2011	3,082.6	2,814.4
2012	3,011.8	2,704.7
2013	3,054.4	2,699.0
2014	3,137.0	2,740.3
2015	2,803.9	2,286.2
2016	2,791.7	2,292.0
2017	3,154.9	2,572.0
2018	3,340.1	2,847.9
2019	3,291.6	2,856.5
2020	3,451.3	2,861.5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

<그림 1> 대만의 전체 교역 현황(2005-2020)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양안 간 전체 교역 동향

양안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적이어서 상호 교역의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대만 해관에 따르면, 대 중국 수출액은 2008년 668.8억 달러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542.5억 달러로 하락하였고, 동 기간 수입액도 313.9억 달러에서 244.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양안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ECFA 체결을 기점으로 양안의 교역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그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마잉주 총통의 친중 정책과 경제 부양책의 한계, 홍콩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반감이 거세졌다. 정권 교체 이후 대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무역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KOTRA, 2016). 대만의 대 중국 수출액 비중은 2014년 26.2%에서 2015년 25.40%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액 추이도 수출액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액과 대 중국 비중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안의 교역이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경제적 실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전후하여 대 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폭도 커졌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외부효과로 중국이 핵심 중간재들을 미국 대신 대만에서 공급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도 양안 간의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두고 대만의 연합보(聯合報)는 이를 “양안 사이에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정랭경열(政冷經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차대운,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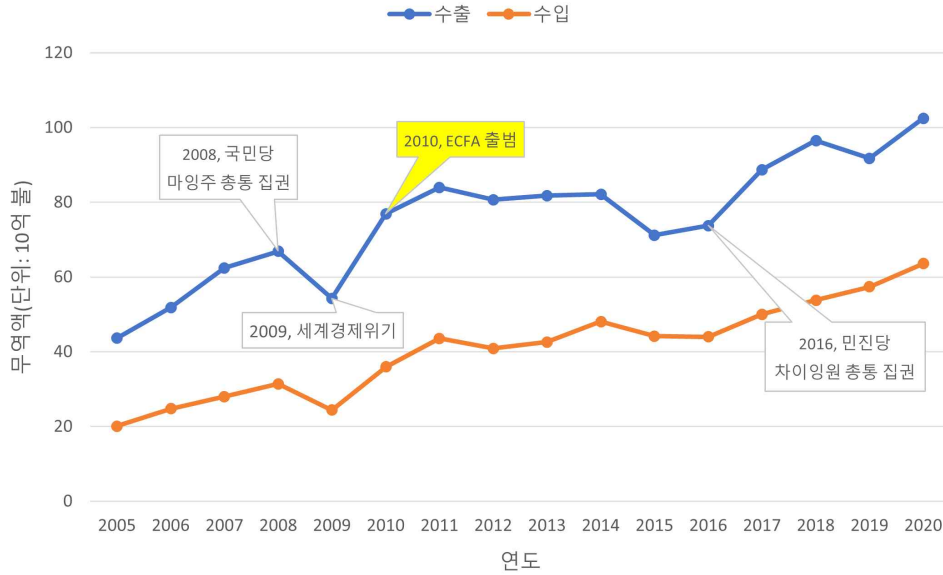
<표 9> 양안 간 전체 교역 현황(2005~2020)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금액	대 중국 비중	금액	대 중국 비중
2005	436.4	21.99%	200.9	11.00%
2006	518.1	23.13%	247.8	12.23%
2007	624.2	25.30%	280.1	12.78%
2008	668.8	26.16%	313.9	13.06%
2009	542.5	26.63%	244.2	14.01%
2010	769.4	28.02%	359.5	14.31%
2011	839.6	27.24%	436.0	15.49%
2012	807.1	26.80%	409.1	15.12%
2013	817.9	26.78%	425.9	15.78%
2014	821.2	26.18%	480.4	17.53%
2015	712.1	25.40%	441.8	19.33%
2016	737.3	26.41%	439.9	19.19%
2017	887.5	28.13%	500.4	19.45%
2018	965.0	28.89%	537.9	18.89%
2019	917.9	27.89%	573.9	20.09%
2020	1,024.5	29.68%	635.9	22.22%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 (<https://portal.sw.nat.gov.tw/APGA/GA35>).

<그림 2> 양안 간 전체 교역 현황(2005-2020)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를 기초로 저자 작성.

3. 대만의 농산물 교역 동향

전체 교역과 달리 농산물 교역에서 대만이 순수입국이다. 대만은 농산물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적자액은 85.9억 달러 수준이다. 대만의 농산물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의 비중이 2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본, 미국, 홍콩, 베트남, 한국 순이다. 주요 수입대상국 중 미국의 비중이 2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브라질,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순이다. 중국의 비중은 6.9%로 3위를 차지했다.

<표 10> 대만의 농산물 주요 수출입 대상국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주요 대상국	수출액	비중	주요 대상국	수입액	비중
1	중국	11.5	22.8	미국	33.3	24.4
2	일본	7.4	14.7	브라질	9.9	7.3
3	미국	6.7	13.2	중국	9.4	6.9
4	홍콩	4.0	7.9	일본	8.1	6.0
5	베트남	3.0	5.9	뉴질랜드	7.6	5.6
6	한국	2.8	5.5	호주	6.1	4.4
7	태국	2.3	4.5	태국	5.6	4.1
8	호주	1.4	2.8	영국	5.0	3.7
9	싱가포르	1.3	2.6	프랑스	4.1	3.0
10	말레이시아	1.1	2.2	베트남	3.6	2.7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

대만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7~2019년 기간 그 비중이 0.95%에서 1.7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다소 정체되었다. 농산물 수입액의 비중은 2006년 3.47%에서 2016년 5.32%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4.77%까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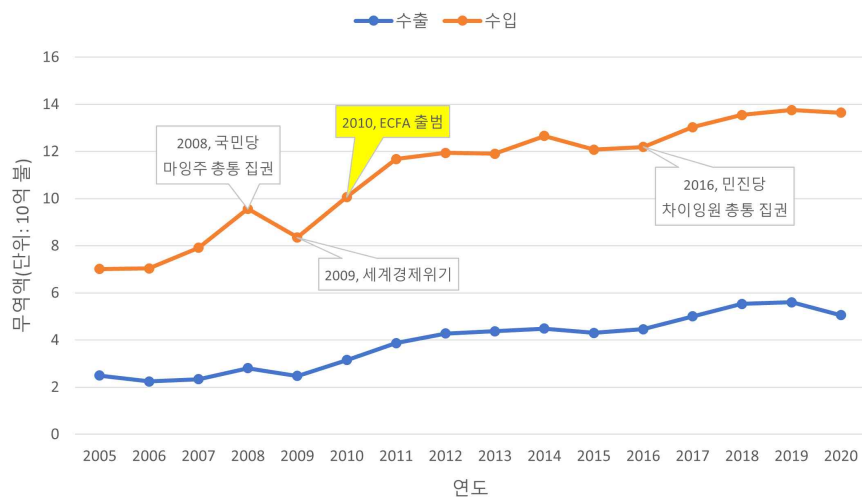
<표 11> 대만의 농산물 교역 현황(2005-2020)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전체 수출 비중	금액	전체 수입 비중
2005	24.9	1.26%	70.2	3.84%
2006	22.5	1.00%	70.4	3.47%
2007	23.4	0.95%	79.1	3.61%
2008	28.1	1.10%	95.7	3.98%
2009	24.8	1.22%	83.5	4.79%
2010	31.5	1.15%	100.7	4.01%
2011	38.7	1.26%	116.8	4.15%
2012	42.8	1.42%	119.4	4.41%
2013	43.7	1.43%	119.1	4.41%
2014	44.9	1.43%	126.6	4.62%
2015	43.0	1.53%	120.8	5.28%
2016	44.6	1.60%	121.9	5.32%
2017	50.1	1.59%	130.3	5.07%
2018	55.4	1.66%	135.5	4.76%
2019	56.0	1.70%	137.6	4.82%
2020	50.6	1.47%	136.5	4.77%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

<그림 3> 대만의 농산물 교역 현황(2005-2020)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를 기초로 저자 작성.

4. 양안 간 농산물 교역 동향

대만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1.1억 달러를 기록한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2020년 11.5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동 기간 대만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연평균 16.6% 증가했다. 이에 대만의 전체 농산물 수출액에서 대 중국 수출액의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비중은 2005년 4.58%에서 2020년 22.75%로 상승했다. 동 기간 대만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도 3.2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 증가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대 중국 수입액의 비중의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작다. 동 기간 그 비중은 4.57%에서 6.87%로 상승했다.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이 수입액 대비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대만은 대 중국 농산물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그 전환시점은 2013년이다.

대만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대 중국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대만과 중국의 시장을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양안의 ECFA 체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안의 ECF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그 증가율이 3.64%에 불과한 반면, 2010년 협정 체결 직후 증가율은 70.55%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짐으로써 2013년 대 중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0.8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ECFA 체결에 그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다. 마잉주 정권은 삼통정책(우편과 통신, 무역, 상호 왕래)을 통해 양안 교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시도하였다. 이는 양안 모두 경제 교류와 정치문제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물론, 중국은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시도한 반면, 대만은 경제적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에서 협정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농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의 확대에 의해 시장개방의 압력이 강화되고, 농산물 교역에서 무관세 수출 및 수입 할당제 적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은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대 중국 수출과 수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 집권당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 중국 교역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실제 무역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만은 ECFA 체결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전에 주요 농산품인 쌀, 마늘을 포함한 830종에 대해서는 수입할당제를 통해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 중국 농산물 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2009년 11월 1일 대만의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에 따르면, 마잉주 정권은 농산물 수입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관세 통계에 따르면, 대만은 2008년 중국과의 전체 교역에서 15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농산물 무역에서 3.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목재, 곡물 외에도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피한 것들이었다. 또한,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활어, 참외, 난, 바나나, 버섯 등 18개 항목에 대해 조기수확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한편, 대만농업위원회는 수입 할당제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대만 기후의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우위로 인식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ECFA 체결 이후 대만산 멜론, 오렌지, 홍롱과 등을 포함한 18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 받아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6년 대만 집권당이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전환되면서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일시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오히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도 민진당 집권 이전과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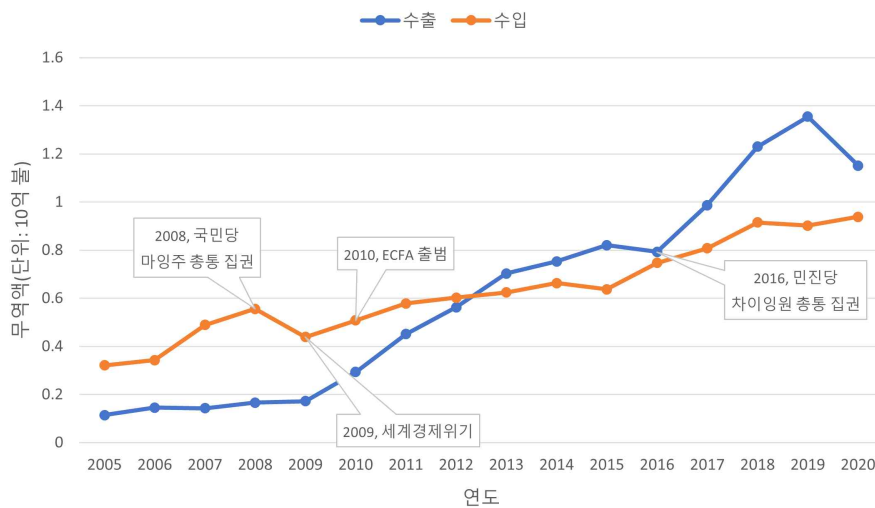
<표 12> 양안 간 농산물 교역 현황(2005-2020)

단위: 억 달러

연도	수 출		수 입	
	금액	대 중국 비중	금액	대 중국 비중
2005	1.1	4.58%	3.2	4.57%
2006	1.5	6.46%	3.4	4.87%
2007	1.4	6.11%	4.9	6.18%
2008	1.7	5.90%	5.6	5.81%
2009	1.7	6.93%	4.4	5.25%
2010	2.9	9.29%	5.1	5.04%
2011	4.5	11.64%	5.8	4.95%
2012	5.6	13.14%	6.0	5.05%
2013	7.0	16.07%	6.2	5.24%
2014	7.5	16.79%	6.6	5.23%
2015	8.2	19.07%	6.4	5.27%
2016	7.9	17.76%	7.5	6.13%
2017	9.9	19.71%	8.1	6.20%
2018	12.3	22.21%	9.1	6.75%
2019	13.5	24.18%	9.0	6.56%
2020	11.5	22.75%	9.4	6.87%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

<그림 4> 양안 간 농산물 교역 현황(2005~2020)



자료: 臺灣 海關進出口統計(<https://portal.sw.nat.gov.tw/APGA/GA35>)를 기초로 저자 작성.

VI. 결론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공통점은 쌍방이 모두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이면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가진 동일한 민족이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이나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편, 분단의 역사적 배경,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주동성과 피동성,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교류협력 여건 등은 상이하다(전병곤, 2012). 따라서 양안의 경제협력 경험을 남북한 간의 협력에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더 성숙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양안 경제협력 경험에 비추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안의 경제협력이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양안 사이에도 매우 민감한 정치·외교적 이슈들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관련 의사결정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이규태, 2011). 양안 경제교류가 정치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박인규, 2015).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대북정책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정부의 관리기제에 의해 좌우되고 외부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과적으로 협력 개시-협력 중단-교착상태 지속-협력 재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협력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양안의 농업분야 협력을 이해할 수 있다.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을 살펴보면, 대만 농업이 선진적 농업기술과 농산업구조, 높은 수준의 시장화와 부가가치 창출, 성숙한 농민조직, 양호한 농업환경 등에서 중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원했고, 중국은 대만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대만의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자국 농업의 업그레이드를 꾀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안 농업분야 협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협회가 양안 농업분야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투자와 협력사업의 분산과 중복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발휘하여 민간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였다. 둘째, 무역과 투자를 포괄하는 ECFA를 체결하여 이행함으로써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상호 권한과 책무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다. 셋째,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만 농민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국은 양안 농업분야 협력을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만을 편입시키려 하고, 향촌진흥(鄉村振興) 등의 국내 삼농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대만의 농업부문 투자와 협력을 연계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만농민창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만의 농업분야 교류와 협력을 집중시키고 이를 거점으로 그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특히,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농업단지’ 조성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공동농업단지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업기술교류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남북한 공동농업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양안 농업협력의 성공 요인과 마찬가지로 협력창구의 일원화, 포괄적 협정을 통한 협력 여건 조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우호적 정책 추진과 적극적 참여, 대내외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유식·강준영. (2017). 대만 차이잉원의 탈중국화정책: 양안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라문화, 54, 389-412.
- 김영훈. (2006). 북한농업의 이해와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한국농공학회지, 48(4), 34-40.
- 김영훈. (2012).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한 대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훈·최용호·임채환. (2015).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구축 방향.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훈·전형진·문한필·임채환. (2019a). 남북미 대화 동향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 濫故而知新. 2019 농업전망,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훈·전형진·손학기·박주연. (2019b). 남북한 경험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성과 추진 방안.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 (1998).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과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타이베이무역관. (2019). 2019 KOTRA 국가정보 대만. KOTRA.
- 도묘연·정상희. (2019). 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세계지역연구논총, 37(3), 73-105.
- 양평섭·이승신·문익준·노수연·정지현·여지나. (2012).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대원. (2018). 일대일로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도시간 경제협력 가능성 분석. 비교경제연구, 25(2), 79-106.
- 유기자, 정다운. (2016). 2017 대만 진출 전략. KOTRA 타이베이무역관.
- 유기자, 오승희. (2017). 2018 대만 진출 전략. KOTRA 타이베이무역관.
- 이규태. (2011). 대만해협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비교연구. 대만연구 창간호, 23-69.
- 이상준·김경술·김영훈. (2012).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원근. (2015).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정치경제학적 함의와 전망: 양안 ECFA와 한중 FTA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4), 99-122.
- 장경호. (2011).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성 증대를 위한 농업협력의 발전단계와 협력과제. 통일과 평화, 3(1), 345-384.
- 전가림. (2014). ECFA의 효과와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32, 69-92.
- 전가림. (2020). 양안관계의 정치적 상호작용 연구: '92공식'과 '양국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4), 33-54.
- 전병곤. (2012). 양안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ECFA와 관련하여. 통일정책연구, 21(1), 187-212.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2011.03.31). 양안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 시행 후 초기 성과.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새소식. Retrieved from <https://overseas.mofa.go.kr/>
- 지성태. (2020). 중국의 협동농장 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신제도경제학 관점에서. 한

- 중사회과학연구, 18(1), 77-117.
- 황동연. (1998). 민간중심의 농업협력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의 농업개혁 조정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한국, 169(20), 94-97.
- 高孟菲. (2019). 鄉村振興視覺下兩岸農業產業融合發展機制研究: 以福建臺灣農民創業園為例. 海峽科學, 153, 16-18.
- 劉宇峰. (2015). “一對一路”戰略下閩臺茶產業合作發展戰略. 臺灣農業探索, 6, 24-29.
- 劉澈元·談琳·陳茜. (2014). ECFA條件下海峽兩岸農業合作試驗區的功能定位與政策走向: 基於兩岸共同參與東亞經濟一體化的視角. 學術論壇, 283, 58-64.
- 林增榮. (2008). 海峽兩岸農業合作試驗區對建設社會主義新農村的啟示. 內蒙古農業大學學報, 10(3), 94-100.
- 武力超·施桑黃·中余. (2015). 后ECFA時代兩岸農業合作的前景分析. 中國人口資源與環境, 25(11), 146-149.
- 徐芬麗. (2020). 兩岸農產品貿易面臨的新問題及未來展望. 臺灣研究, 2020年第4期, 20-30.
- 伍曉軍. (2018). 鄉村振興戰略下深化粵臺農業合作的思考.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63, 101-105.
- 王紅玲. (2015). ECFA背景下的兩岸農業科技合作. 資政群議, 16-18.
- 程同順·李遠卓. (2018). 臺灣地區農業的優勢及兩岸農業合作的思路. 嶺南師範學院學報, 39(1), 105-111.
- 左武榮. (2020). ECFA 背景下海峽兩岸深化農業經貿合作的研究. 商業經濟, 521, 136-138.
- 崔景漢·王駿·陳偉明. (2015). “一對一路”戰略下的閩臺農業合作. 中國財政, 19, 71-72.
- 박인규. (2015.11.12.). 진화하는 양안관계와 퇴보하는 남북관계.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1114#0DKU>
- 전찬익. (2013.07.12). 대만의 ‘전국농회’ 설립 관심.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RPT/105283/view/>
- 차대운. (2021.07.14.) 중국, 관계 악화에도 대만과 무역 증가...공급망 중요성 커져.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130900089>
- AP News. (2021.09.21). “Taiwan’s FM condemns ‘hostile’ fruit import ban from China”.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business-china-beijing-global-trade-taiwan-bd29b4fc08ae38289d72427b49540499> .
- KATI. (2020.12.). 대만 농업 현황. <https://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85>
-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1.06.30). “ECFA 체결관련 농업위원회 발표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Retrieved from <https://www.kati.net/>.
- 臺灣 海關進出口統計. (2021.05.01.-2022.01.14.). <https://portal.sw.nat.gov.tw/APGA/GA35>
- 騰詢新聞. (2021.01.20.). 臺資2020年赴大陸投資額大增41.5%. <https://xw.qq.com/cmsid/20210120A09QN600>
- 兩岸網. (2010.04.15.). 簽署ECFA王毅提出五點保證不擴大農產品入臺無意實施勞務出口. http://www.360doc.com/content/10/0415/10/803452_23133115.shtml
- 百度. (2020.05.16.). 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10年期限將至, 回顧ECFA來世今生. <https://baijiahao.baidu.com/s?id=1666805663205696093&wfr=spider&for=pc>
- 產業信息網. (2021.06.09.). 2020年中國農民專業合作社發展情況分析: 農民專業合作社數量達19.25萬戶. <https://www.chyxx.com/industry/202106/956165.html>
- 蕭衡鍾. (2020.05.12.). “一對一路”背景下的兩岸經貿合作與臺灣發展. 華夏經緯網. <http://www.huaxia.com/thpl/tdyh/yqbj/2020/05/6421741.html>

前瞻產業研究院. (2019.10.14.). 產業之問: 打造現代茶產業鏈助力福建省成爲中國茶產業一哥.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191012-747c7eb5.html>

周妙芳. (2008.12.). 兩岸農業合作試驗區之發展對我國農業之影響及其因應措施. <https://www.coa.gov.tw/ws.php?id=18645>

中共中央臺辦·國務院臺辦. (2012.11.20.). 農業政策法規舉要. http://agri.taiwan.cn/zcfg/201311/t20131119_5226541.htm

中共中央臺辦·國務院臺辦. (2021.04.27.). 歷年兩岸貿易統計表. http://wzstb.wenzhou.gov.cn/art/2021/4/27/art_1217781_58900391.html

中華民國財政部關務署. (2021.11.09.) 海關進出口統計. <https://portal.sw.nat.gov.tw/APGA/GA35E>

海峽兩岸農業合作網. (2016.10.12.). 海峽兩岸農業交流協會簡介. http://agri.taiwan.cn/gywm/201610/t20161012_11590795.html

부록. 대만농민창업단지 현황

1. 장푸(漳浦)

<그림 5> 장푸 대만농민창업단지 마스터플랜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장푸 대만농민창업단지(台灣農民創業園)는 2006년 4월 10일 농업부(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의 비준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대만 농민창업단지 2곳 중 하나이다. 총 면적은 30만 묘(畝:약 200km²에 상당)이며 핵심지구, 시범지구, 보급지구로 구성 되어 있다.

핵심지구는 5만 묘(약 33.35km²) 면적에 '5개 센터, 1개 원, 2개 구역(五個中心、一個園、兩個區)'을 갖추고 있다. 5개 센터는 과학기술서비스센터(科技服務中心), 창업인큐베이팅센터(創業孵化中心), 해협화훼집산센터(海峽花卉集散中心), 농업박람회센터(農博會展中心), 양안(海峽兩岸: 대만과 중국대륙) 산악·구릉지대 농기계시범센터(海峽兩岸丘陵山區農機演示中心)이다. 1개 원은 양안박람회단지(海峽園博園)이며, 2개 구역은 난초월드구역(蘭花大世界園區), 식용균산업구역(食用菌產業園區)이다. 시범지구는 화훼, 과일·채소류, 찻잎, 어업, 농산물가공, 물류 등 6개 산업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핵심지구와 시범지구의 조성으로 장푸현(縣)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장푸 단지에 입주한 대만 자본 농기업은 270개이고 대만 자본의 실제 이용 금액은 4억여 달러이며 연간 생산액은 35억 위안을 넘어선다. 장푸 단지는 210여 개의 우량 품종과 30여 항목의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재배 보급 면적은 35만여 묘(약 233.45km²)로 장푸현 농업재배면적의 1/3 수준이다. 장푸 단지는 해협정원박람회단지, 해협화훼집산센터, 과

학기술서비스센터, 난초월드, 국제난초전시회센터, 전국 세번째의 식물 수출입 검사·검역센터, 농업 실리콘밸리, 수토(水土)보존 과학교육원, 삼고(三古) 관광정거장, 민난(閩南: 푸젠성 남부지역) 생태문화회랑, 양안농민 교류·교육기지, 텐푸차(天福茶)월드, 성(省)내 현(縣)급 최대 어패류육종집산센터, 미위안(蜜原)생태농장을 조성하여 현지 산업 발전을 이끌고 농민 수입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장푸 단지의 양안 인적 교류와 시찰 및 성묘차 오는 대만 방문객이 매년 5,000여 명에 달하여 양안의 산업기술 교류와 정서 교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밖에 장푸 단지는 대만농민창업, 양안농업협력, 농업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양안 농민의 정서 교류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었고 대만농업 진출기지, 대만농업 과학기술도입 시범기지, 농업 과학기술 교류·교육기지, 양안 농업협력정책 시범기지도 선정되었다.

2. 푸젠 취안저우 후이안(福建泉州惠安)

<그림 6> 후이안 대만농민창업단지 마스터플랜과 주요기업분포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후이안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11년 6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된 중국 유일의 해수양식을 특화 산업으로 하는 국가급(級) 대만농민창업단지이다. 후이안 현(縣) 전체를 포괄하는 단지는 '131'공정에 따라 총 5개 기능구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1개의 R&D관리센터(管理研發中心)가 있다. 그리고 3개의 민타이(閩台: 푸젠성과 대만) 농업현대산업 협력구역이 있는데, 현대화 농업생산 협력구역(現代農業生產合作區), 농산물무역 협력구역(農產品工貿合作區), 대(對) 대만 항구무역·물류 종합구역(對台口岸貿易物流綜合區)이다. 또한 1개의 관광농업 체험장(休閒農業觀光體驗長廊)이 있다. 고급 과일·채소류·수산물산업, 관광농업산업, 농산물 심가공업, 무역·물류업 등 4대 주도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후이안 단지는 중앙정부와 성(省)·시(市)정부의 대(對) 대만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협력추진, 교류증진, 호혜상생, 공동발전’ 이념에 따라 양안의 농업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산업의 특색을 부각하고 단지 조성을 체계화하여 단지의 발전과 질도 대폭 향상시켰다. 현재 후이안 단지에는 대만 관련 농기업 47개사가 독자(獨資), 합자(合資), 합작(合作) 등의 형태로 입주해 있으며 그중 대만 독자기업은 14개사, 합자기업은 8개사, 합작기업은 28개사, 협동조합은 1개가 있다. 대만 자본 기업의 총 투자액은 1.9억 위안, 대만 연간 외화 획득액은 약 1,000만 달러이다. 우량품종 30종, 신형 비료 8종, 신설비 22대를 대만에서 들여와 보급하고 있다. 협력 분야는 재배업, 해양어업, 관광농업, 농산물 가공업, 장비제조업 등을 다양하게 아우르며 다원화된 협력 구도를 보여준다.

3. 푸저우 푸칭(福州福清)

<그림 7> 푸칭 대만농민창업단지 전경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푸칭 대만농민창업단지는 1997년 설립되어 2011년 6월 국가급으로 승격되었다. 수산, 목축, 과일, 채소, 화훼 등 우수 산업을 배치하고 ‘8개 구역, 1개 센터(八區一中心)’을 구성한다. 8개 구역은 고효율·고품질 채소 시범지구(高效優質蔬菜示範區), 특색 있는 고품질 유명 과수 도입 협력구역(特色名優果樹引進合作區), 가축 사육 표준화 시범지구(畜禽標準化養殖示範區), 수산 양식 표준화 시범지구(標準化水產養殖示範區), 농산물 가공 시범지구(農產品加工示範區), 화훼·묘목 기술 도입 시범지구(花卉苗木技術引進示範區), 중약재 GAP 표준화 시범지구(中草藥GAP標準化示範區), 관광농업 협력 시범지구(休閒農業合作示範區) 그리고 과학기술도입 R&D·관리센터(科技引進研發管理中心)가 있다. 총 면적은 30만 묘(약 200.1km²)로 24개 진(鎮: 중국 행정 구역 중 네번째 단위. 성→시→현→진→향→촌 순서.)을 포괄한다. 푸칭시정부는 푸칭 단지의 기업 유입을 늘리고 대만 상인의 농업 투융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대만농민창업단지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푸칭정부종합문건 [2012] 25호)’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푸칭 단지에 입주하는 대만 자본 농기업이 토지·바다·산지 이용과 인프라, 융자, 각종 수수료, 자녀 취학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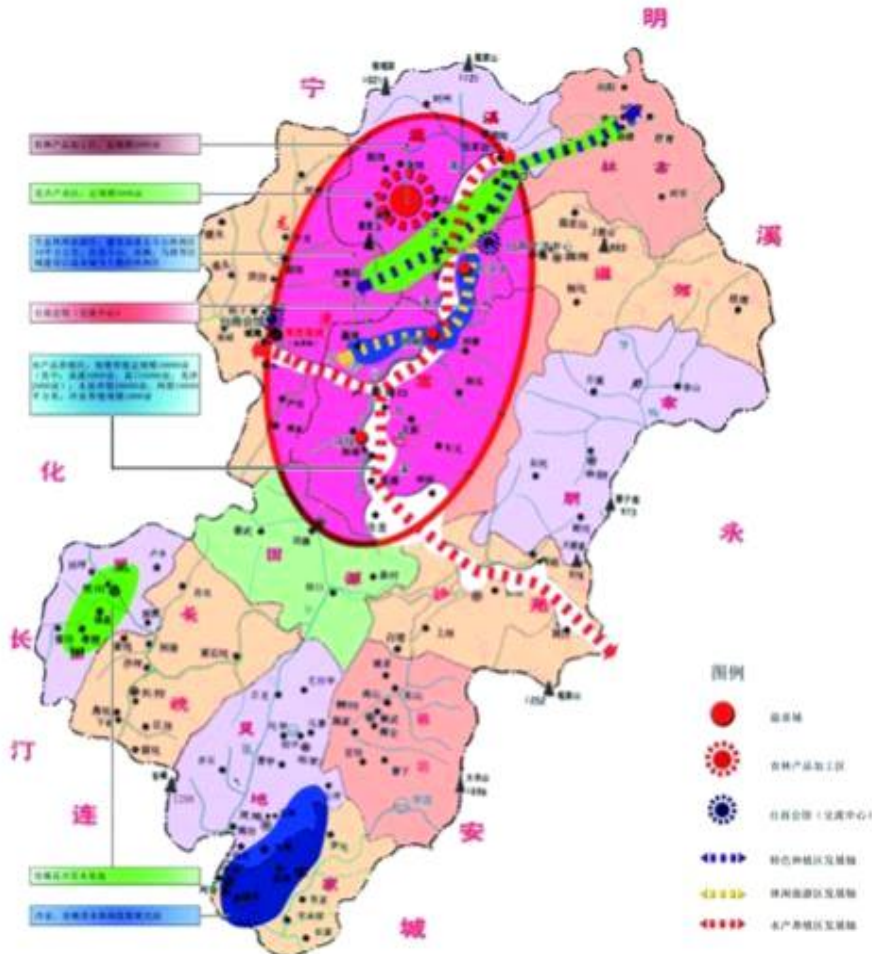
였다. 단지에는 독자, 합자, 합작 농기업 36개사가 입주하여 재배, 양식, 가공, 휴양·관광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푸칭 단지의 총 투자액은 3.82억 달러, 대만 자본 실제 이용 금액은 0.85억 달러이며, 2015년 총 생산액은 23억 위안이다. 대만 품종 도입과 시범 재배 및 보급에서 홍관농업(洪寬農業), 디카이농업(帝凱農業), 민파종묘(閩發種苗), 핑둥농림(屏東農林), 홍평타이양식(宏峰泰養殖), 뤼이농현대화 농업(綠溢濃現代農業)과 같은 기업이 복숭아, 모과, 아스파라거스, 만수국, 자모란, 송장풀 등 우량 품종 56종을 대만에서 들여왔다. 시범재배면적은 3,800여 묘(약 2.53km²)이고 푸칭시 누적 보급 면적은 약 1만 묘(약 6.67km²)이다. 이 사업으로 60여 개의 농기업이 성장했고 연간 농민 소득은 1억 위안 넘게 증가했다.

푸칭 단지는 홍관협농장(福建洪寬台灣農業科技有限公司)을 핵심지구로 하며 예상 투자 금액은 10억 위안이고 면적은 3,600묘(약 2.4km²)이다. '4개 구역, 1개 센터(四區一中心)'로 구성된다. 4개 구역은 채소재배구역(약 0.33km²), 과일재배구역(약 0.8km²), 농산물가공구역(약 0.23km²), 휴양·관광구역(약 0.8km²)이다. 1개 센터는 기술도입·교육관리센터(약 0.23km²)이다. 하우스 재배 토마토, 피망, 고추, 가지 등 각종 무공해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망고, 스타 프루트, 자바 애플 등 대만의 고품질 과일과 아프리카 인삼(非洲人參)같은 대만의 진귀한 약재를 재배하고 대만 농업기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핵심지구에는 이미 5.6억 위안을 투입하여 1개의 소형 저수지와 6개의 간선도로를 조성하였고 단지 내 배전실을 설치하였다. 경작지 전기회로(2.4 km²)와 대만 표준기준의 채소 스틸하우스 32개동(0.1 km²), 대만과일 재배구역(0.46 km²), 제1기 농산물가공공장 2개동(2 km²), 농산물 냉장창고 2개동(1.47 km²)도 갖추었다.

2014년 홍푸위안농업(洪璞園農業科技公司)이 핵심지구에 입주하여 재배와 생산 위주이던 대(對) 대만 농업산업을 농산물 심가공 산업사슬로 확장시켜 산업을 전환하는 주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홍푸위안은 대만 싱치주그룹(星期九集團)투자로 설립되었고, 푸젠성 최초로 상온건조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다. 또한 Non-GMO 콩·곡물 세포벽분해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농산물 고유의 색, 향, 맛과 엽록소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건과일·건채소류, 버섯, 두유분말가루, 곡물가루, 효소, 아프리카인삼 티백이 있으며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홍푸위안의 제1기 사업 총 투자액은 500만 달러로 1개의 자동 두유분말가루 생산라인과 2개의 건채소·건버섯 생산라인을 대만에서 도입, 가동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2억 위안을 내다보고 있다. 제2기 총 투자액은 2,000만 달러이며 가동 후 연간 생산액은 2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홍푸위안 생산 모델은 기업+기지+농가를 결합한 형태로서 현지 농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앞으로 규모화된 푸칭 농업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 푸젠 쑤밍 칭류(福建三明清流)

<그림 8> 푸젠 쑤밍 칭류 대만농민창업단지 내 4개 구역 및 1회 계획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网) (<http://agri.taiwan.cn/>)

푸젠성 쑤밍시 칭류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9년 5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되었다. 중국 전역에 29개, 푸젠성에 6개를 보유한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이다. 총 면적은 21만 묘(약 140.07km²)이다. 이 중 핵심지구는 5.6만 묘(약 37.35km²)이고 '4개 구역, 1개 회(四區一會)'로 구성되어 있다. 4개 구역은 화훼묘목산업구역(花卉苗木產業區), 특화양식구역(特色養殖區), 농림산품가공구역(農林產品加工區), 생태관광구역(生態休閒旅遊區)이다. 1개 회는 대만상인연합회(台商聯誼會)이다. 해협양안 현대화 농업 협력 시범기지과 현대 농임산물 가공 시범기지, 해협서안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민타이 농업 교류·협력의 주요 시범 플랫폼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칭류 단지는 '전국 농산물가공 창업기지', '양안 과학기술 산업협력기지', '전국 농촌창업 혁신단지', '성(省)급 전문서비스기지'로 선정되었다.

5. 푸톈 셴유(莆田仙遊)

셴유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위원회는 현(縣)정부 직속 정과급(正科級: 중국 공무원 직무 등급 중 하나. 총 27개 급(級) 중 16-22급에 상당)으로 총 인원 17명, 현 인원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셴유 단지는 2007년 6월 설립되었고 2009년 5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가 되었다. 국가급 셴유 대만농민창업단지는 푸젠성 동남쪽 연해안에 있는 셴유현(縣) 북부에 위치하며 방터우(榜頭), 중산(鐘山), 유양(遊洋), 스창(石蒼), 차이시(萊溪), 서싱(社廍), 수평(書峰), 두웨이(度尾), 시위안(西苑) 등 9개 향(鄉)과 진(鎮)을 아우르고 있다. 총 면적 1,175km²이며 그 중 경작지는 15.5만 묘(약 103.39km²), 산지는 138만 묘(약 920.46km²)이다. 셴유 단지는 관광, 임업, 특화농업 등의 우수 자원과 풍부한 물자와 다양한 품종을 갖추고 있다. 셴유 단지는 기후, 자원, 지형, 생활습관이 대만 중남부 산간 지역과 유사해 관광과 농업에서 대만과의 매칭이나 협력이 용이하다. 대만 관광과 농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인 셈이다. 2009년 5월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가 된 이후 2016년 9월 말까지 셴유 단지에 입주한 대만 자본의 유명 농기업과 개인사업자는 55곳이며 대만 상인은 110여 명이다. 누적 투자액은 7,500만 달러, 개발 면적은 4만여 묘(약 26.68km²)이며 중국 최대의 대만 단감기지(재배면적 약 16.68km²)와 중국 최대 자부치카바(Jaboticaba) 대만묘목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셴유단지 연혁

(1) 1999년 초, 대만에 살던 셴유계 사람 우부옌(吳步琰)이 차이젠취안(蔡健全) 등 대만 상인 3명에게 중국 유양진(鎮) 답사를 권함(유양진이 대만의 기후, 자원, 지형과 유사하여 재배업 발전에 유리한 곳이라고 판단). 2000년 대만 단감 시범 재배에 성공한 이후, 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끌고 대만 상인이 또 다른 대만 상인을 영입하면서, 재배 면적이 꾸준히 확대되고 농업 분야에서 대만 상인의 집중투자지역으로 기틀 마련.

(2) 2006년 8월, 대만농민창업단지 공식 가동, 같은 해 양안 푸젠 농업 시범구역 중점 사업에 선정.

(3) 2007년 6월, '셴유현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위원회' 설립. 중산(鐘山), 유양(遊洋), 스창(石蒼)의 3개 향진(鄉鎮)에서 9개 향진으로 규모 확대.

(4) 2008년 12월, 성(省) 양안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만농민창업단지 조성 종합 계획안인 '116(1개 센터, 1개 휴양벨트, 6개 시범기지)사업' 마련.

(5) 2009년 5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을 받아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로 승격.

6. 룽옌 장평(龍巖漳平)

장평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6년 설립되어 2008년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로 승격되었다. 장평 단지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아름다운 생태환경, 깊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위도, 산지 기후, 산업 형태가 대만 아리산(阿裏山)과 유사하여 대만 상인들은 이곳을 '중국의 아리산'으로 부른다.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의 아리산' 브랜드는 대 대만 교류·협력에서 룽옌시(龍巖市) 나아가 푸젠성의 중요한 브랜드가 되었다. 장평 단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적 특색이 뚜렷하다. 현재 대만 기업 76개사, 대만 농민 600여 명이 장평 단지

에 입주해 있다. 규모가 큰 차(茶) 제조업체 23곳과 고산차 기지 48개가 단지에 분포되어 있다. 연간 생산규모는 1,600여 톤, 실제 생산액은 7.2억 위안에 이른다. 장핑 단지는 대만 상인에게 명실상부한 최대 투자처이자 중국 최대 고산 우롱차 생산기지가 되었다. 융푸(永福) 고산차는 '대만식 우롱차'로 국가 농산물 지리 표시 등록으로 보호 되고있고 '대만식 우롱차 가공기술규범'은 국가표준으로 채택되었다. 그 밖에도 장핑 단지는 '국가급 양안 과학기술산업 협력기지 회원사',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 핵심지구인 융푸진(鎮)은 '중국 진달래의 고향', '전국 아름다운 향진'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대만 농민 2세의 창업 '배턴 터치'이다. 장핑 단지는 대만사람이 다른 대만사람을 영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장핑 단지에서 창업하는 대만 농민 2세와 3세가 꾸준히 증가하여 단지 발전에 새로운 주인공이 되고 있다. 현재 장핑 단지에서 창업한 대만 청년 기업이 23개사에 달하고, 60여 명의 대만 청년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 명은 대만 기업을 관리하거나 고위직을 맡고 있다. 대만 청년들은 차(茶)산업을 관광·요양·전자상거래와 접목시켜 차(茶)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 밖에 장핑 단지는 국가급 '해협양안 청년취업·창업기지', '대만 청년 산업융합 창업 시범기지', 성(省)급 '대만 대학생 농업교육 실습기지', '대만 청년 취업·창업기지'로 선정되었다. 2019년에는 국가급 해협양안 청년 취업·창업기지 및 시범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셋째, 산업의 융합 속도가 빠르다. 장핑 단지의 대만 농민과 현지의 화훼 농민은 대만 관광농업 발전을 본보기 삼아, 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경영 방식을 융합하여 전통농업을 관광농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중국 아리산 관광단지'로 불리는 장핑 단지는 국가 'AAA'급 관광단지로 선정되었는데, 대만벚꽃차밭(台品櫻花茶園)은 최대 규모, 최적의 계절, 뛰어난 경관으로 '전국 10대 벚꽃 관람지' 및 '중국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란 명성을 얻고 있다. 그 밖에도 '양안 차(茶)산업 협력 중점 시범기지', 중국 최초로 '전국 녹색식품 1차·2차·3차 산업융합발전 시범단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7. 장쑤 옌청 옌두(江蘇鹽城鹽都)

<그림 9> 장쑤 옌청 옌두 대만농민창업단지 전경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장쑤성 옌청시(市) 옌두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10년 5월 11일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되어 2012년 8월 운영을 시작하였다. 옌두 단지는 쑤완(三灣), 리창

(李莊), 민창(民強), 위안사오(袁邵), 종령(宗凌), 동휘(董黦), 청스(程實), 신양(新楊), 푸왕(富王), 거우(葛武), 위차이(育才), 하오룽(郝榮) 등 12개 촌(村)을 포함하고 있다. 총 면적은 50km², 경작지는 4.6만 묘(약 30.68km²), 인구는 3.2만 명이다.

옌두 단지는 '개방적 운영, 안정적 추진, 대만적 요소, 생태적 특색'이란 이념 속에 '1개 센터, 5대 기능구역(一個中心、五大功能區)'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 센터는 R&D 인큐베이팅 센터(研發孵化服務中心)로 종합계획전시, 과학기술 R&D, 품질검사, 정보공시, 관광서비스, 농경 과학보급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

5대 기능구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훼묘목산업구역(花卉苗木產業區)이다. 이 구역은 화롄루(花蓮路), 타이난루(台南路), 귀리루(郭李路), 쌍신(雙新)도로를 잇는 '2중 2횡(二縱二橫)'형태를 띤다. '1개의 꽃에 1개의 단지, 1개의 단지에 1개의 산업(一花一園, 一園一業)'이란 목표아래 윈예·화훼 시범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하우스과일채소생산구역(設施果蔬生產區)은 후이민로(惠民路)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뻗어 있다. 여기에는 포도, 딸기, 채소 같은 고효율 하우스과일채소 생산장과 열매따기 체험장이 블럭형(連片: 마을 단위 외주 형식 경작의 관리 및 비용적 이점을 위해 조각조각의 논밭이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 큰 농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논밭 구획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농산물 가공구역(農產品加工區)이다. 이 구역은 곡물·과일·채소류 가공과 저온저장·물류 산업에 중점을 둔다. 셋째, 순환농업 시범지구(循環農業示範區)이다. 이 구역은 씨가축·특수가축 생산시범기지과 농업목축 순환기지, 유기농 농장, 생태림·과수지대를 갖추고 있다. 학씨(郝氏) 고향 농업관광구역(郝氏故里農業休旅區)은 학씨 고택, 종묘, 정토사(淨土寺), 리하강(裏下江) 인문학 정취 및 명상 체험장 같은 테마 공간이 있다.

옌두 단지는 시장의 주체로서 상기 계획에 따라 연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산업의 규모를 넓히며 혁신으로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80여 개의 각종 농업 사업도 잇따라 유치했다. 옌두 단지의 면적은 1.8만 묘(약 12.01km²)이며 윈예·화훼, 하우스과일채소, 휴양·관광과 같은 특화된 산업으로 현대화된 농업 발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대만해협 화훼항구(약 2km²), 하우스과일채소기지(약 1.33km²), 순환농업시범지구(약 0.67km²)를 조성하여 윈예·화훼, 하우스과일채소, 휴양·관광의 특화 산업을 형성, 옌두 단지의 현대화된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8.장쑤 화이안 화이인(江蘇淮安淮陰)

장쑤성 화이안시(市) 화이인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9년 5월 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 공실, 상무부의 비준으로 설립된 대만농민창업단지이다. 화이인 단지의 핵심지구는 한신(韓信)의 고향이자 천년을 이어온 마터우진(碼頭鎮)에 자리한다. 이곳은 대운하가 흐르고 경치가 뛰어나며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해낸 곳이다. 화이인 단지는 '대만 농업자본의 집결지이며, 도시농업 발전의 본보기'이다. '대만의 특성과 후이안의 특색 구현'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대만 자본의 새로운 집결지로서 화이인·대만 농업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왔다.

총 면적은 96.63km²이며 핵심지구에는 고급쌀 생산구역(優質稻米產業區), 정밀농업 생산구역(精緻農業產業區), 농산물 가공구역(農產品加工區), 물류산업구역(物流產業區), 관광농업구역(休閒農業)의 6개 기능구역을 조성하였다. 화이인 단지는 고급 화훼, 인기 채소, 고품질 유명 과일, 고급 쌀, 농산물 가공·물류, 농업관광, 농업 과학보급 및 교육시범, 농업 과학기

술 R&D를 주력 산업으로 하여 하이테크 농업의 혁신성과전환기지, 농산물 가공수출기지, 고품질 특색 농산물 생산집결지, 농업 현대화를 위한 생태·휴양·녹색산업기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 밖에 화이인 단지는 국가급 농업 과학기술단지, 국가급 농업 산업화 시범기지, 전국 청소년 농업 과학보급 시범기지, 국가급 현대화 농업 성장천지(星創天地: 농업혁신창업 서비스 플랫폼), 성(省)급 현대화 농업 표준화 시범단지, 성(省)급 원예작물 표준단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화이인 단지는 20억 위안을 투입하여 명위안로(明遠路), 구황허로(古黃河路), 징얼로(經二路), 웨이쓰로(緯四路), 얼하(二河)대교, 장푸하(張福河)대교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4중 4횡(四縱四橫)'교통 시스템을 갖추었고 도로 녹지와 배수 공사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마터우진(鎮)에 얼하대교가 완공되면, 화이인 단지는 강 하나를 두고 화이안시(市) 중심가까지 차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어 화이인 단지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대만 농민협회(農民協會), 브랜드협회(品牌推廣協會), 타이베이(臺北)시 농민협회, 난터우(南投)현 농민협회 등 화이인 단지 조성 이래 680여 명에 달하는 친선 방문단이 화이인 단지를 찾아 투자 또는 시찰하였다. 현재 입주기업은 45개사(대만 자본기업 12개사)이고 총 투자액은 2.5억 달러에 이른다. 그 중 황다난초(皇達蘭花), 타이성원균(台生源菌業), 징타이친환경과학기술농업(景台環保科技農業), 대만감농원(台灣柿子園)과 같은 주요 대만 자본기업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

9. 장쑤 우시 시산(江蘇無錫錫山)

<그림 10> 장쑤 우시 시산 대만농민창업단지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시산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장쑤성 우시시(市) 시산의 안진(安鎮), 동강진(東港鎮), 시베이진(錫北鎮)의 경계에 위치한다. 2008년 2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쑤성 최초의 국가급 대만 농민창업단지이다. 시산 단지는 2012년 우시 국가 현대화 농업 시범지구의 핵심지구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우시 국가급 농업 과학기술단지의 핵심지구가 되었다. 총 면적은 33.5km²이고 그중 핵심지구는 12km²이다. 우시 현대화 농

업 박람회(無錫現代農業博覽園), 우시 하이테크농업 시범단지(無錫高科技農業示範園), 중국농업과학원 태호벼 시범단지(中國農科院太湖水稻示範園), 우시시산 바이오농업 생산단지(無錫錫山生物農業產業園), 우시시산 고급채소 산업단지(無錫錫山精品蔬菜產業園等五個子園區)라는 '5원 일체(五園一體)'의 틀을 마련하였다. 시산 단지는 '과학기술의 선도, 뚜렷한 특색, 지속가능한 발전, 강한 구동성' 원칙에 따라, 천연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스마트, 바이오, 생태, 관광농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고급 화훼, 고급 과일·채소류, 종자·종묘, 기능성 쌀 등을 재배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주 기업은 82개사, 총 투자액은 8억 위안, 생산액은 6억 위안이다. '정부가 지도, 시장이 운영, 기업이 경영, 회사가 관리'한다는 발전 노선에 따라, 시산 단지는 현대화 농업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산업을 도태·통합·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고차원적 산업·가치 사슬을 만들어 장쑤성 남부지역과 시산의 특색을 담은 현대화된 농업단지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우시시와 장쑤성 나아가 전국적으로 현대 농업의 선도 단지이자 모범 단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0. 장쑤 난징 장닝(江蘇南京江寧)

<그림 11> 장쑤 난징 장닝 대만농민창업단지 영농기술관(台創園农艺馆)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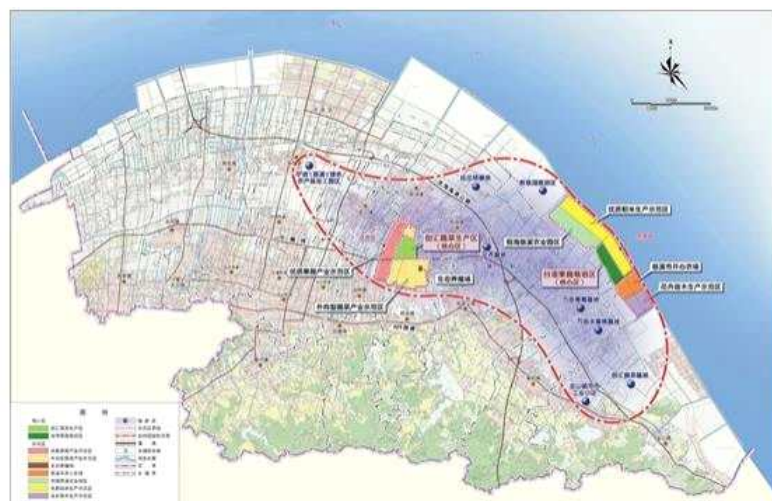
장쑤성 난징시(市) 장닝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8년 12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되었다. 총 면적은 120km²이며 형시(橫溪)핵심지구와 리수이바이마(溧水白馬)보급지구, 가오춘구청(高淳固城)보급지구로 구성된다. 장닝 단지는 '장쑤성 현대농업산업단지', '난징시 농업과학기술 성과전환기지', '난징시 지정화훼시장', '농업 IoT시범기지', '장쑤성 4성급 농촌관광지'로 잇따라 선정되었다. 2013년 말에는 국가 AAA급 관광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고, 2015년에는 '장쑤성 주요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확정되었다. 3년 연속 장쑤성 장쑤·대만 농업협력단지 12곳 심사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장닝 단지를 농업개발단지로 전환하자는 단지위원회 의견에 따라, '농촌+관광'을 결합한 농촌관광과 새로운 농업 형태를 현지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하우스농업과 바이오 종자산업, 농산물 가공·물류, 관광농업의 4대 특화 산업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누적 투자액은 10억 위안으로 핵심 지구는 이미 기본 틀을 형성하여 '8개 단지, 1개의 장(八園一場)'을 구성하였다. 대만 농민창업화훼단지(台創花博園)는 약 1km² 면적에 총 투자 금액 3

억 위안으로 화훼 및 시설농산물 도소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5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30만 그루의 호접란을 수출한다. 국가 중점 화훼문화 시범기지가 되기 위한 신청을 하여 연구·생산·공급·판매에서 완전한 산업사슬을 갖추도록 틀을 마련하여 하우스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바이오 농업 산업단지 중점 육성은 장닝 단지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연간 호접란 100만 그루를 생산하는 바이오 배양센터, 대만 신위안바오(新源寶)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장, 철포석곡을 재배하는 룽위안(龍源) 생태중약재 재배기지와 같은 바이오 농업 사업이 잇따라 가동되었다. 샤오자좡(肖家莊) 바이오농업 과학기술 R&D기지 공사도 5월 말 완공되었다. 투자 규모 3억 위안의 장쑤성 종자산업 혁신시범기지 조성을 계획하여 중국농업과학원 식물보호연구소 종자산업사업과 연계성을 높였고, 대만 징웨이국제회사(晶威國際股份有限公司)와 바이오 비료 사업을 추진하여, 하이테크 바이오 농업 사업에 관한 일련의 협의들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양안의 새로운 바이오 종자산업단지 조성으로 바이오 종자산업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높이는데 취지가 있다. '대만 혁신농업관광구역(台灣創意農業旅遊區)'조성에도 공을 들여 대만의 희귀식물 90여 종을 전시하고, 대만 특색의 식품 또는 먹거리 10여 종을 들여와 연간 100만 위안이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5,000㎡의 생태체험관과 300묘(약 0.2km²)의 백화원(百花園)을 조성하고 화훼 DIY 체험관과 청소년 수련관, 서바이벌 게임장과 같은 관광 콘텐츠도 증설하였다. '제 11회 중국 난징 농업축제(第十一屆中國南京農業嘉年華)'를 개최하여 누적 관광객 38만 5천 명, 관광소득 1억 위안을 달성하여 관광농업과 관광산업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 장닝 단지는 과일·채소류 가공·저장과 묘목 운송을 연계하여 유스올림픽 파트너사인 웨이저우식품(南京味洲航空食品股份有限公司)을 유치하여 2만㎡의 콜드체인 물류생산기지와 높은 수준의 중앙 공급형 주방인 센트럴키친 작업장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액 1.2억 위안, 세수 800만 위안을 달성하였다. 2016년 기준 신삼판(新三板: 중국의 장외주식 시장) 상장을 준비하면서 장닝 단지의 농산물 운송단가를 절감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여 현대화된 농업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1. Ningbo Cixi (寧波慈溪)

<그림 12> 츠시 대만농민창업단지 마스터플랜 및 산업분포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츠시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10년 5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된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이다. 2012년 2월 2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츠시시(市)는 1980년대부터 대만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며 대만의 우량종 재배법과 선진 설비를 도입하고 대만 자본 기업을 유치하면서 츠시 지역의 농업을 전환시켜왔다. 이는 츠시 단지의 설립 배경이자 바탕이기도 하다. 츠시 단지는 항저우만(杭州灣)대교 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Ningbo와 60km, 북쪽으로 Shanghai와 148km, 서쪽으로 항저우와 138km 거리이다. Shanghai-항저우-Ningbo 트라이앵글 경제권의 중심에 자리한다. 총 면적은 5만 2,350묘(약 34.92km²)로 그 중 핵심지구는 5,550묘(약 3.7km²), 시범지구는 4만 6,700묘(약 31.15km²), 보급지구는 15만 묘(약 100.05km²)이다. 상급 부처의 지원 속에 츠시 단지의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첫째, 전반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츠시 단지는 ‘츠시 대만농민창업단지 종합계획(慈溪台灣農民創業園總體規劃)’에 따라 ‘1개 센터, 2개 핵심, 3개 구역(一心二核三區)’으로 구성되었다. ‘1개 센터’는 츠시 단지 관리서비스센터(台創園管理服務中心)이다. 면적은 6,000만m²이며 현재까지 2,800만 위안이 투입되었다. 현재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실외 부대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츠시시(市)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전시관 사업도 착공에 들어갔다. ‘2개 핵심’은 수출채소 핵심지구(出口蔬菜核心區)와 하우스채소 핵심지구(設施蔬菜核心區)를 말한다. 수출용 채소와 대만 요소를 특색으로 하여 그린빈스, 풋콩, 브로콜리 등의 수출용 채소를 주로 재배한다. 현재 기본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3개 구역’은 Ningbo 친환경농산물가공기지와 대만농민창업단지 가공물류기지를 포함한 농산물 가공구역(農產品加工區), 하우스원에 시범구역(設施園藝示範區), 생태축산 시범구역(生態牧業區)을 말한다. 건축 면적 1km² 규모의 Ningbo 친환경농산물 가공기지는 전국 최초의 ‘국가 농업산업화 시범기지’이자 ‘전국 농산물가공업 시범기지’, ‘저장성 중점농산물 가공기지’이다. 하우스원에 시범지구는 저장형하이농업회사(浙江恒海農業投資有限公司)이 투자하여 1.2만 톤 규모의 공장형 새송이버섯과 20묘(약 0.01km²) 규모의 철파석곡을 재배한다. 생태축산 시범지구는 홀스타인 젖소 4,000마리를 사육한다. 세계적 추세인 계류식 사육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TMR(완전배합사료), 기계식 사료공급차량, 자동분뇨처리, 병렬식 착유기와 같은 선진 설비를 도입하여 화둥(華東)지역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사육장 중 하나로 꼽힌다.

둘째, 대만 자본 농기업의 안정적 성장세이다. 츠시시는 1980년대부터 Ningbo다통식품(寧波大統食品有限公司)과 같은 대만 자본 농기업 16개사를 유치하였고, 총 투자액은 4,000만 달러를 넘어선다. 현재 등록된 대만 자본 농기업은 츠시시용진냉동식품(慈溪市永進冷凍食品有限公司), 다웨이츠시식품(大越慈溪食品工業有限公司), 츠시용싱식품(慈溪永興食品有限公司), 츠시다잔농업재배(慈溪市大展農業種植有限公司), 츠시주쉬안바이오테크(慈溪竺萱生物科技有限公司) 5개사이다.

츠시시 용진냉동식품회사는 저장성 농업 핵심 선도기업으로 주로 반조리식품을 생산한다. 2015년 자산총액은 1억 1,888만 위안, 생산액은 1억 2,268만 위안에 달한다. 다웨이츠시식품회사는 Ningbo시 농업 선도기업으로 주로 채소를 수출한다. 2015년 자산총액은 7,704만 위안, 생산액은 3,283만 위안이다. 츠시용싱식품회사는 Ningbo시 농업 선도기업으로 주로 반조리된 새우와 오징어를 취급한다. 2015년 자산총액은 5,933만 위안, 생산액은 7,602만 위안이다. 츠시다잔농업재배회사는 츠시시 현대화 농업개발구역에 약 2.42km² 규모의 재배기지를 갖추고 있다. 주로 수출용 채소를 재배하며 다웨이츠시식품회사의 원재료 기지이기도 하

다. 츠시주취안바이오테크회사는 연간 200만 그루 이상의 호접란을 재배하고 있다.

셋째,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츠시 단지의 도로, 수도, 가스 등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있다. 2억 위안을 투입하여 83km 길이의 주요 간선도로 노반 공사와 20km 길이의 노면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2횡 7종(二橫七縱)'도로 형태를 갖추었다. 9,000만 위안을 투입하여 송수관 35km, 천연가스관 9km, 하천 복개 40km 규모의 포장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다. 텐왕(天網. 범죄자 추적을 위해 공안(公安)경찰이 길거리에 설치해 놓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과 통제센터 설치도 마무리되어 단지 주요 출입구를 모두 영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대만 자본 및 대만 기업 유치 성과가 두드러진다. 츠시 단지는 기업 유치를 중요 과제로 삼고, '대(大)기업·대(大)사업·대(大)플랫폼'라는 목표 아래 기업과 인재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세계 500대 기업인 태국 CP그룹(Charoen Pokphand Group)을 비롯하여 저장형하이그룹(浙江恒海集團), Ningbo 우유그룹(寧波牛奶集團), 신장서부목축업(新疆西部牧業)과 같은 중국 대형 농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2015년 외자 계약 금액은 1,030만 달러이며, 실제 중국으로 유입된 금액은 1억 위안에 달한다. CP 그룹의 경우, 현재까지 2.2억 위안이 투입된 산란계 100만 마리 사육 사업은 이탈리아 설비를 도입하였다. 자동화 사육 및 가두리식 관리 그리고 생산이력추적을 통해 설계 규모에 맞는 생산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3.5억 위안을 투자해 매년 10만 마리의 호주산 육우를 수입하여 분리 도축하는 제1기 사업이 착수되었다. 2017년부터는 육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CP그룹 식품가공사업의 일환으로 5억 위안이 투입된 식품공장 설립 제1기 사업도 토건 공사에 들어갔다. 또한 CP그룹이 1.87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식품R&D센터 설립 사업도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1억 위안을 투자한 연간 7,000톤 규모의 식용균 공장형 재배 사업과 1.5억 위안이 들어간 연간 2,400톤 규모의 공장형 장어 양식 사업도 2016년 가동될 예정이다.

12. 타이저우 셴취(台州仙居)

<그림 13> 셴취 대만농민창업단지 전경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셴저우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9년 11월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되었다. 저장(浙江)성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 3곳 중 하나이다. 2010년 3월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단지 설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5년 간의 노력으로 셴저우 단지가 순탄하게 조성되면서 단지 발전을 토대도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다.

셴저우 단지는 8,000여 묘(약 5.34km²)에 달하는 블럭형(連片: 마을 단위 외주 형식 경작의 관리 및 비용적 이점을 위해 조각조각의 논밭이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 큰 농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논밭 구획 방식) 토지 사용권 양도를 완료하고 26개 현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확정 투자액은 25억여 위안에 달한다. 이미 24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고 그 중 3개가 대만자본, 6개가 합자(현재 셴저우 단지에서 일하는 대만인 및 그 가족은 8명, 그중 단지 상주자는 3명) 형태를 띠고 있다. 잔여 사업도 대만의 품종이나 기술, 경영 이념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만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 현재까지 30여 종의 신품종, 10여 항목의 선진기술을 대만에서 도입하였다. 주요 산업으로는 유기농제품 생산, 고급 화초·묘목 재배, 종자·종묘 연구개발, 특색·고급과일 재배, 희귀 중약재 생산, 관광농업 등이 있다. 그 밖에 각종 투자 금액이 10억 위안을 넘어섰고 70만m²에 이르는 농업 하우스 설치도 완료했다. 호접란 생산기지 15묘(약 0.01km²), 양배추 육종기지 200묘(약 0.13km²), 철피석곡 우량종 재배·생산기지 150묘(약 0.1km²), 채소 육종 및 유기농 재배기지 3,500묘(약 2.33km²), 특색·고급 과수원 800묘(약 0.53 km²), 모란단지 100묘(약 0.07km²) 및 대만의 우량 방울토마토·페피노 멜론(Pepino melon) 같은 대만자본 사업이 완성되었다. 1억여 위안을 투입하여 도로, 배수로, 상수도, 전력공급, 녹지조성 등의 인프라도 구축하여 셴저우 단지의 산업 수용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13. 저장 윈저우 창난(浙江溫州蒼南)

<그림 14> 창난 대만농민창업단지 내 룡강명강남 생태단지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창난현(縣)은 창난 대만농민창업단지 소재지로 저장성 최남단에 위치한다. 대만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푸젠성 푸딩(福鼎)시와 인접하여 '저장성의 남대문', '저장성의 목, 푸젠성의 입'으로도 불린다. 중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이자 저장성과 푸젠성

경계에 있는 현(縣)·시(市)의 중요한 물자 집산지이다. 남쪽으로는 양안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 푸젠성을 중심으로 저장성 남부, 광둥성 동부, 장시성 일부 등 대만해협 서안의 중국 지역 경제권), 북쪽으로는 양자장삼각주경제구(長江三角洲經濟區: 양자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등 41개 도시를 포괄하는 경제권)와 이어져 두 경제권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자 이 둘을 연결하는 핵심 지역이다. 창난현은 원저우시(溫州市)가 양안서안경제구로 진출하기 위한 '최전방 진지'이며 원저우 도시권과 푸저우(福州) 도시권의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화동·화남 지역에서 창난 단지와 대만 간 협력에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저장성 양안서안경제구 유입의 교두보로서 2009년 11월 5일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의 비준으로 창난 대만농민창업단지가 설립되었다. 설립 허가를 얻은 후 창난현 위원회와 창난현 정부 고위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난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위원회(2014년 초 창난현 농업국(南縣農業局)으로 업무 이관)가 설치되었다. '남쪽지역 문을 열어, 양안 서쪽의 대만과 새롭게 융합하자'는 저장성과 대만 경제협력지역 발전 전략을 세웠다.

2010년 7월 창난현은 창난 단지 종합 계획인 '1개 축, 1개 벨트, 1개 핵심 및 1개 구역, 5개 단지, 다층적 보급(一軸一帶一核心, 一區五園多輻射)'을 발표하였다. 창난 단지 핵심지구는 총 면적 3.4만 묘(약 22.68km)로 창난현 마잔진(馬站鎮)과 다이링(岱嶺)서족향(畚族鄉)을 포함한다. 마잔진을 시작으로 옌푸(沿浦)진을 지나 샤관(霞關)어항(漁港)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창업단지를 형성하여 농업 재배, 가공, 무역을 통합하는 '산업의 축(軸)'이 될 것이다. 푸청(蒲城), 위랴오(漁寮), 다이링(岱嶺)을 거점으로 자연, 민속, 문화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형태의 복합 트렌디 관광벨트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1개 축과 1개 벨트'는 마잔 현대화농업 핵심지구, 샤관진(鎮) 대 대만 소액무역단지, 옌푸 농부산물 가공단지, 다이링 민속단지, 푸청 고대문화관광단지, 위랴오 해안휴양·관광단지의 6개 창업단지 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핵심지구는 성(省)급 검수 통과 완료한 마잔 현대화농업 종합구역(馬站現代農業綜合區)을 기반으로 시설채소, 식용균, 특색과일, 수산양식 4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샤관 소액무역단지(霞關小額貿易園)는 대만과의 업무를 적극 개진하여 부두와 물류 건설을 확대하였다. 2014년 7월 '제3차 국가 개방 확대 시범 항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선박톤수와 거래금액도 한계치를 뛰어넘었다. 위랴오 해안휴양·관광단지(漁寮濱海休閒觀光園)는 낚시테마농원, 수상놀이공원, 해양관광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푸청 고대문화관광단지(蒲城古文化觀光園)는 종합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동문거리(東門街)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푸청의 인문학적 경관이 한층 더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다이링 민속단지(岱嶺民俗風情園)는 1천만 위안을 투입하여 민족·민속관람과 생태농업, 농가 체험, 자연관광을 한데로 묶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서족(畚族) 문화광장과 서족향(畚族鄉) 장미단지가 조성 중이다. 옌푸 농부산물 가공단지(沿浦農副產品加工園)는 옌푸 농부산물 가공단지 내의 마잔 염전에 위치한다. 용도 변경과 공업건설용지를 위한 토지허가를 이미 받은 상황이다. 현재 전반부 업무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연구, 환경 영향 평가, 상세 계획, 토지 계획 조정, 토지 예비심사, 채석장 부지 예비선정에 돌입하였다. 창난 마조문화단지(蒼南媽祖文化園)는 양안의 마조문화 계승과 동일 민족이라는 문화정체성 향상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대만 웨이리그룹(威利集團)과 대만사람의 후원으로 조성되는 창난 마조문화단지 메인 건물이 정식 착공되었으며 마조석상, 천후궁(天後宮), 마조광장, 문화관, 양안교류센터, 해양문화박물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보급지구는 핵심지구의 시범적 과급적인 영향을 받아, 옌장 현대화농업 종합구역(沿江現代農業綜合區)을 중심으로 창난현과 대만과의 농업교류를 이끌고 있다. 현(縣)위원회와 현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향(鄉)·진(鎮)의 적극적인 참여로, 창난 단지의 보급지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착공에 들어간 르웨탄(日月潭)농장, 타오후(桃湖) 대만농업시범단지, 저민타이(浙閩台: 저장성, 푸젠성, 대만) 민족화원생태단지, 룡강명강남(龍港夢江南) 생태단지는 모두 대만기업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르웨탄농장은 창난현 소재 르웨탄농장(日月潭農莊有限公司)과 대만 기업의 합작사업이다. 용지는 1,600묘(약 1.07km²), 예상 투자금액은 8,000만 위안이다. ‘원저우시 관광농업시범단지’, ‘2013 대만 자본 유치 선진기업’, ‘원저우시 관광농업 시범단지’, ‘저장·대만 농업협력 시범기지’로 잇따라 선정되었다.

둘째, 저민타이 민족화원생태단지는 용지 800묘(약 0.53km²) 규모에 예상 투자 금액 2,000만 위안의 사업이다. 우주(宇宙)육종기술을 활용하고 대만의 우수품종과 재배기술을 도입하며, 양안서쪽의 민족문화를 접목시켜 대만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셋째, 룡강명강남 생태단지는 대만 상인 루웨샹(盧月香)과 베이징첸위안루스투자(北京乾元盧氏投資有限公司)의 합작 사업이다. 총 면적은 608묘(약 0.41km²)이다. 투자액 1.2억 위안 중에 5,000만 위안이 사업 1기에 투입되어 최근 문을 열었다. 이 단지에는 농업관광·재배단지, 낚시터, 공원식 열대식물원 및 농촌체험장, 서바이벌게임·유산소운동센터, 놀이동산·물놀이장, 문화단지, 농가체험장, 마을민박, 실내외 레저·엑티비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14. 쓰촨 청두 신진(四川成都新津)

<그림 15> 신진 대만농민창업단지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신진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6년 8월 농업농촌부(農業農村部)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비준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쓰촨성에서는 첫 번째로 세워진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이다. 신진 단지의 핵심지구는 국가급 생태마을이자 중점마을인 싱이진(興義鎮)에 있으며 면적은 38km²에 달한다. 신진 단지는 ‘청두를 기반으로, 쓰촨성 전역까지 나아가 서부지역의 일류가 되자’는 발전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만의 ‘삼생(三生: 생산성, 생활성, 생태성)’ 농업이념과 ‘오신(五新: 신품종, 신기술, 신비료, 신농약, 신농기구)’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현대화농업의 생산기지, 쓰촨·대만의 협력시범기지, 양안의 창업혁신기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진 단지는 과학적인 계획과 정책적 유도, 매개체 구축, 메커니즘 혁신을 통해 단지 조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2월 청두시(市) 편제위원회관공실(編製委員會辦公室)의 결정으로,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위원회가 농림국(農林局)에서 분리되어 대만농민창업단지 추진사무실(台灣農民創業園推進辦公室)이 설립되었다. 추진사무실은 현(縣)정부 국장급(正局級) 파출기관(派出機構)이다. 행정 인력 6명을 선정하여 핵심 인력으로 배치하고 단지의 계획·관리와 기업·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관리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위원회와 현정부가 신진 단지의 발전을 중시함에 따라, 현정부의 중요간부가 추진사무실 조직의 책임자로 맡고 현위원회 및 현정부가 각각 부책임자를 맡고 있다. 현금 관련부서로 구성된 단지업무지도팀(台灣農民創業園工作領導小組)은 비정기적으로 업무회의를 갖고 중대 사항이나 문제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 대만 자본 기업은 12개사이고 총 투자액은 약 10억 위안이다. 상성농장(翔生農場), 관수팅 대만풍경거리(蕃薯藤台灣風情街), 타오위안호 TINA장원(桃園湖TINA莊園), 주롄 대만창업혁신인큐베이터(九蓮台創園創業創新孵化基地) 과 같은 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청두) 국제유기농회의(中國(成都)國際有機農業峰會)’와 제3회 및 제5회 ‘쓰촨·대만 농업협력포럼(川台農業合作論壇)’을 두 차례 주관하였으며,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싱이포럼(興義論壇)’을 4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 유기농시범기지’, ‘전국 청소년 농업과학보급 시범기지’, ‘전국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쓰촨·대만 농업협력 시범기지’으로 선정되었다. 양안 우수농업교류 시범단지로서 현대화된 도시농업 발전과 3차 산업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농업농촌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이 선정하는 전국 우수 대만농민창업단지에 선정되었다. 2017년 4월 당시 홍슈주(洪秀柱) 국민당주석이 ‘신진 대만농민창업단지’라고 쓰인 친필 글씨를 선사하였다. 이후 신진 단지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대폭 높아져 대만 자본과 대만 기업이 몰리게 되었다. 이는 양안 농업 교류를 한층 더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고 새로운 성과를 낳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게 해주었다.

15. 쓰촨 판즈화 옌벤(四川省攀枝花盐边)

2009년 11월 설립된 판즈화시(市) 옌벤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쓰촨성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대만농민창업단지이다. 판즈화시 옌벤현(縣) 남부에 위치한 옌벤 핵심지구는 1만 묘(약 6.67km²) 면적에 옌벤현 이민향(益民鄉)과 홍거진(紅格鎮) 12개 마을을 아우르고 있어 옌벤현 전역이 핵심지구에 포함된다.

옌벤 단지는 ‘3개 단지, 2개 센터(三類園區、兩個中心)’로 구성된다. 3개 단지는 농업 하이테크기술 인큐베이터(農業高新技術孵化園), 농산물 심가공 및 운송·판매기업 창업단지(農產品深加工和運銷企業創業園), 특색 농산물재배 시범단지(特色農產品種植示範園)이다. 2개 센

터는 대만상인 서비스 및 농업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센터(台商服務和農業科技信息服務中心), 농민 협동조합 지도센터(農民專業合作組織輔導中心)이다.

2010년부터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성(省) 대만사무관공실의 지대한 관심과 판즈화시(市)위원회와 시정부의 지도 아래 옌벤현위원회와 현정부는 옌벤 대만농민창업단지 핵심지구 조성을 농업중대과업에 편입시켰다. 이후 '옌벤 대만농민창업단지 핵심지구계획(鹽邊台灣農民創業園核心區規劃)'을 세우고 각종 자금(6922.85만 위안)을 마련하여 옌벤 단지 핵심지구의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6년 9월 대만자본 기업인 판즈화이핀차오빙초콜릿(攀枝花逸品敲冰巧克力莊園有限公司)의 입주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기업·자본 유치가 이루어졌다. 이어 판즈화루이화농업개발(攀枝花銳華農業開發有限公司), 쓰촨징마오성농업과학기술개발(四川景茂盛農業科技開發有限公司), 옌벤현쑹린마오농업(鹽邊縣松林堡特色農業有限責任公司) 등 중국 농업기업 6개사가 입주했다. 그 밖에 대만망고, 자바애플, 스타 프루트, 아노나, 구아버 등 10여 종의 과일 품종을 도입하고 스타 프루트 200묘(약 0.1334km²), 망고 품종인 케이트(Keitt), 타이농1호(台農一號), 아이윈(愛文), 진황(金煌)을 5만묘(약 33.35km²) 재배하여 보급하고 있다.

옌벤 단지는 대만 기후와 작물 종류가 대체로 비슷해서 농업 분야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옌벤 단지는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만과의 협력 분야를 적극 모색하고 양안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이자 대만 산업 이동의 집결지로 성장할 것이며 상호 교류·협력을 전반적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16. 헤이룽강 무단강 서안구(黑龍江牡丹江西安區)

<그림 16> 서안구 대만농민창업단지 전경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헤이룽강 무단강 서안구 대만농민창업단지(이하 '대만농민창업단지'라 함)는 동베이 지역 유일한 대만농민창업단지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생'이라는 5대 성장이념을 전격 추진하고 관철하여 '정부 주도, 정책 지원, 시범 선도, 사회 지지'의 발전 원칙을 강력 실시하였다. 창업단지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만과의 협력 분야를 개척하여 더 많은 대만기업 투자사업이 대만농민창업단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안 간 경제적 협

계획(中原經濟區規劃)에 편입되면서 국가 전략으로 승격되었다. 슈우현(修武縣) 시내 북쪽에 위치한 본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북으로는 윈타이산(云台山) 관광지구와 인접해 있고 동으로는 신상시(新鄉市) 휘자현(獲嘉縣)으로 이어지며, 남으로는 슈우현 시내와 맞닿아 있고 서로는 자오쥘 시가 지역으로 통한다. 11.07만 묘(약 7,380km²)에 이르는 총 계획 면적에 청관진(城關鎮), 치시엔진(七賢鎮), 우리유안향(五里源鄉) 3개 마을과 41개 행정 마을 총 45,000명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농업과학기술원이 설계한 본 대만농민창업단지 전체 계획은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전문가의 검증을 이미 거친 바 있다. 본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승인 및 설립 이후 성(省), 시(市), 현(縣) 차원에서의 지대한 관심 아래 독보적인 교통 및 입지 조건과 인근의 윈타이산 관광구역과 같은 관광자원, 풍요로운 농산물 등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만의 정교한 농업 철학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농업에 관광업을 융화시킨 발전을 가속화했다. 지금까지 총 25개의 주요 기업이 입주하여 생태 관광 농업 산업, 화훼 묘목 재배 산업, 과·채소 재배 산업, 축산 양식 가공 산업 등 4대 주력 산업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다.

18. 산둥 시샤(山東棲霞)

<그림 18> 시샤 대만농민창업단지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산둥 시샤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6년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이 공동으로 승인·설립한 국가급 창업단지로 국가 여러 위원회 및 성·시·현 각급 정부의 특혜 속에 산둥 시샤 대만농민창업단지 개발 유한공사(山東棲霞台灣農民創業園開發有限公司)(이하 ‘대만농민창업단지’라 함)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맡고 있는 산둥반도 블루경제구역(藍色經濟區: 산둥성이 중국 최초 해양경제를 테마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계획)내 중점 사업이다.

시샤시(棲霞市) 타오춘진(桃村鎮)에 위치한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옌타이(延臺),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등 3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자오둥(膠東)반도 내 한 시간 경제권 중 하나로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이 두드러진다.

북쪽으로는 추류(楚留)강, 남쪽으로는 청양(淸陽)강, 동쪽으로는 다구자(大沽夾)강(포도 재배 단지), 서쪽으로는 타오웨이(桃威) 철도가 위치해 있으며, 1차 계획 초기 261ha에 달

했던 전체 면적을 A, B, C, D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하였다. 가장 먼저 A구역이 만들어졌고 이 외 3개 구역은 4년 이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기획했던 지구로는 포도 관광 체험 지구, 와인 웨딩 타운, 유럽 스타일 와인 타운, 와인 산업 본부 경제 창업 지구, 와인 레저 관광 기능지구 등이 있다. 단지 전체를 중국 와이너리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와인 타운, 중국 와인 문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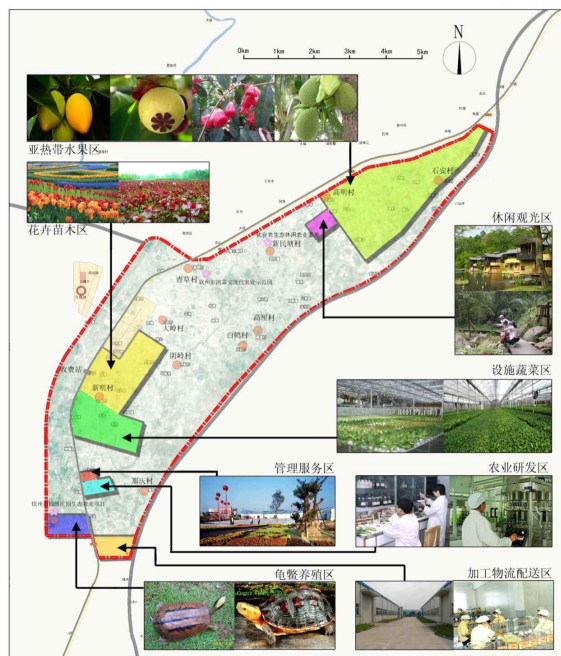
현재 본 사업은 포도 재배 및 양조, 프로젝트 개발 구축, 와인 특화 관광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본 사업과 연계한 생태 농업, 와인바, 전세계 와인 비즈니스 관리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은 대규모 포도 과수원, 세계 각지 스타일의 와이너리 클러스터, 세계 와인 거리, 중국 와인 본부 기지, 와인 관광 및 웨딩 호텔, 중국 와인 미디어 비즈니스 전시 센터, 농업 시범 패키지 체험 관광, 자오둥 생태 농업 시범지구(膠東生態農業示範區) 등이 있다. 전국 와인 집산지 및 관광 중심지, 총 70만 m² 면적 중 사업 초기 45만 m² 규모를 할애할 와인 산업 부설 마을도 조성될 예정이다.

목표하고 있는 본 사업 와인 생산량은 연간 1,000만병으로 그 중 200만병은 와이너리 오프너 전용 소유로 돌아가며, 3만묘(약 20km²) 규모의 포도 과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와인 마을에는 약 만개의 객실이 구비되고 1,500묘(약 1km²)의 시범 체험 관광지구(4계절 과일 및 채소, 화훼, 녹지, 낚시, 테마파크 등), 생태 농업 상품(일부는 마을 생활 관련 상품)으로 50만 묘(약 333.33km²) 이상을 개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완공 시 와인타운에만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연간 관광 수용인원은 300만 명, 프로젝트 전체 총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연간 3억원 이상의 소득과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19. 광시 칭저우 칭난(廣西欽州欽南)

<그림 19> 칭난 대만농민창업단지 마스터플랜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网) (<http://agri.taiwan.cn/>)

광시 친저우 친난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11년 12월 말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 사무관공실의 승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 29개 대만농민창업단지 중 하나로 광시성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국가급 대만 농민창업단지다.

단지는 핵심지구와 시범지구, 보급지구로 나뉜다. 핵심지구는 주룽진(久隆鎮) 전체, 시범지구는 친난(欽南) 전체, 보급지구로는 친저우시(市)와 그 외 주변 지역이 포함되며,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가 간접적인 보급지구에 속한다. 이 중 핵심지구를 중점적으로 기획하였고 2012~2013년을 제1차로 하여 2014~2015년을 제2차, 2016~2020년을 제3차로 나누어 개발했다. 총 74,366.5묘(약 49.58km²) 면적 중 제1차 개발 연도와 제2차 개발 연도에 25,000묘(약 16.67km²)의 핵심지구 기능구역을 조성했다. 이는 다시 23,800묘(약 15.87km²)의 기능구역과 1,200묘(약 0.8km²)의 인프라 건설 및 생태 양성, 산업 발전 예비 구역으로 나뉜다.

단지는 그 기능에 따라 아열대 과일 지구, 화훼·묘목 지구, 시설재배 채소 지구, 자라 양식 지구, 가공물류 배송 지구, 레저 관광 지구, 농업 연구 개발 지구, 관리 서비스 지구 등 8개 기능성 지구와 아열대 과일 과수원, 용과 테마공원, 새마을 건설 전시 공원, 해양수산 테마 농원, 화훼·묘목 주요 농원, 채소 테마 농원, 사탕수수 테마 농원, 대만 생태 유기농 농원 등 8개 테마농원으로 구성됐다.

5년 간의 발전을 거쳐 친난(欽南)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대만의 현대농업을 전수받고 광시성(省)과 대만 간 농업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며, 기존 농업 기법의 전환을 일으킨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이후 대만 바이어와 농업 협동조합 이사 및 회원 1,900여 명이 단지를 다녀갔다. 2015년 총 생산액은 2억 2000만 위안으로 2014년 1억 9700만 위안보다 11.7% 증가했고 올해 총 생산액이 2억4000만 위안에 달해 3500여명 농민의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2,483가구의 농가 소득을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건설 이후 지금까지 시(市)와 구(區) 차원에서 약 1억 위안의 자금을 유치하여 단지 건설 및 계획에 투입했다. 이는 단지 내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건설과 주차장, 단지 녹화 등 부설 서비스 시설, 사탕수수,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는 표본 단지 건설에 주로 사용됐다. 2014년 이후 광시 특화 관광 명소(廣西特色旅遊名縣) 창설을 계기로 수준 높은 대만농민창업단지 특화 농업관광단지를 조성하였고 2014년 국경절 시즌 성공적인 첫 출발로 현재 전국 관광농업 및 농촌관광 4성급 단지로 자리잡았다. 2015년 단지 내 레드용과 산업 시범지구는 20개 자치구급(自治區級)의 현대 특화 농업(핵심) 시범지구 중 하나이자 국가 농업 과학 기술단지가 되었다.

올해 본 단지는 현대 특화 농업 건설의 수요에 따라 단지 내 현·구급(縣區級)과 향·진급(鄉鎮級) 현대 특화 농업 시범지구를 각 하나씩 추가 조성했다. 아울러 빈곤 퇴치에 있어 대만농민창업단지가 발휘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각종 특수 과·채소 상품 재배에 대한 앞선 경험을 활용하여 농민들이 표준화된 재배·생산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조직했다. 이를 통해 빈곤층에 있는 농민들이 봄 죽순, 우대력, 용과, 라임, 배, 사탕수수, 채소, 과채 상품과 경제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는 빈곤퇴치 정책과 전국 관광, 전자상거래, 농가 마을 건설 및 특수 농업 등 분야와 융합하여 단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제고함으로써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대만농민창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지 발전에 대한 수요에 근거하여 기획 전반을 즉시 업데이트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매년 2,000만 위안 이상의 사업 경비

로 단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대만 기업들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더욱 강화하여 매년 3개 이상의 대만 기업을 유치해 2020년까지 5억 위안 이상의 총 생산액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 후난 웨양현(湖南嶽陽縣)

<그림 20> 웨양 대만농민창업단지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후난 웨양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9년 11월 정식 설립(웨양 편제위원회 판공실 통과 [2009년] 240호)된 정과급(正科級: 중국 공무원 직무 등급 중 하나. 총 27개 급(級) 중 16-22급에 상당) 행정지원 사업처로 주임 1명, 부주임 3명, 기율검사팀장 1명 등 총 14명이 전액 지급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직무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종합판공실, 재무투자부, 투자정보부, 기획건설부 등 4개 내설 기관을 두고 있으며 현재 후난성에서는 유일한 대만농민창업단지다.

후난 웨양 대만농민창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핵심지구, 시범지구, 보급지구 등 3개 섹션으로 나누어 조성하는 것이다. 핵심지구는 황사제(黃沙街) 진 진평중(鎮平中)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계획된 면적은 3.94km², 개발 예비용지는 1.03km²다. 시범지구는 200km² 규모로 황사(黃沙), 중저우(中洲), 청관(城關), 신창(新牆) 등 16개 마을에 포진해 있으며, 핵심지구 신산업 인큐베이팅 실험지이자 홍보 기지로 사용된다. 여기서서는 주로 특수 과일, 유기농 채소, 조경·화훼, 축·수산, 농산물 가공, 레저 관광 등 현대 과학기술 농업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보급지구는 웨양현(嶽陽縣)과 그 주변지역을 가리킨다. 핵심지구 내 선두기업의 주도하에 시범지구 내 홍보 기지에서 시범 생산 및 기능 연계를 중심으로 웨양현은 물론 주변 지역과 더 넓게는 후난성 농업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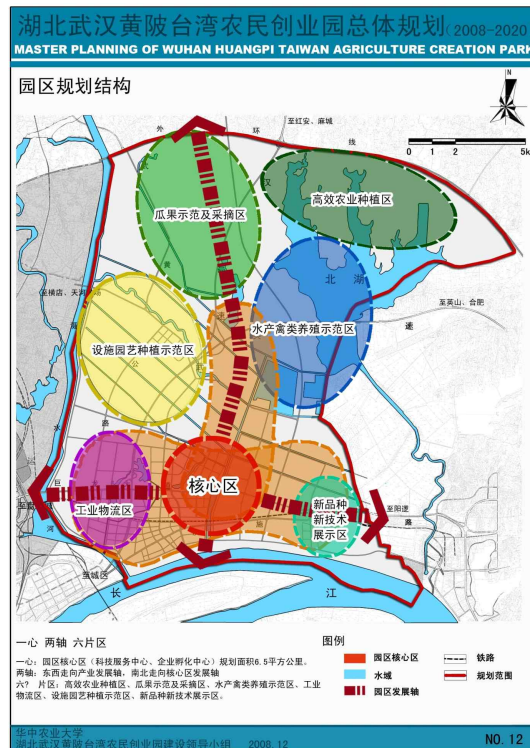
현재 2억 5000만 위안의 인프라 투자가 유치되어 ‘과학적 계획으로 전체를 추진하며 혁신적 시스템 아래 책임을 세분화하여 전폭적 지원을 얻는다’는 조건에 따라 1,914묘(약 1.28km²) 규모의 토지를 징수했다. 2011~2014년까지 961묘(약 0.64km²) 규모의 국유건설용지 5종(宗: 중국 토지 구획 기본 단위)을 국토자원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중 541묘(약

0.36km²)를 이용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인프라 용지가 198묘(약 0.13km²)(물공장 13묘(약 0.0086km²), 광장 10묘(약 0.0066km²), 조경 도로 111묘(약 0.074km²), 하수처리장 20묘(약 0.013km²), 허시에루 13 통이루 투창루(和諧路13統一路圖強路), 싱왕루(興旺路) 44묘(약 0.029km²) 포함), 기업용지 343묘(약 0.23km²)(상자 105묘(湘佳 약 0.07km²), 뉴뉴 78묘(牛牛 약 0.052km²), 이룽 40묘(益隆 약 0.026km²), 푸아이 55묘(普愛 약 0.036km²), 징위안 40묘(靖園 약 0.026km²), 주주 25묘(九九 약 0.016km²) 포함)이다. AE 필지는 270묘(약 0.18km²) 규모로 현재 용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기초 작업 중으로 현재 고르기 작업이 끝나 이용 가능한 부지는 150묘(0.1km²)가 남아 있다. 단지 내 3800m의 간선로와 하드웨어 공사 및 12,300m²의 입구 광장 건설, 1만t의 상수도 건설, 단지 오물 배출 시스템 공사 및 부설 통신 인프라 시설 건설이 점차 준공됨에 따라 단지 기능이 나날이 더 개선되고 있다.

현재 7개사가 입주해 있고 총 투자 유치액은 11억 4500만 위안에 달한다. 대만의 리량(李良)씨가 투자한 1억 5000만 위안의 쉰건유안 수산 양식 및 가공(尋根源水產養殖及加工), 중단(中丹)과 푸아이 그룹(普愛集團)이 합자하여 투자한 1억 2724만 위안의 푸아이 바이오텍(普愛生物科技), 5억 8000만 위안을 투자한 후난 웨양 상자 목축업(湖南嶽陽湘佳牧業), 1억 1000만 위안을 투자한 징위안식품(靖園食品), 뉴뉴 테크(牛牛科技), 이룽 견과(益隆堅果), 주주 생태과학(九九生態科技) 등의 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세계 500대 기업이자 유럽 2위 농기업인 DLG가 허난 푸아이 그룹과 합작 투자한 푸아이 바이오 사료(普愛生物飼料) 하루 생산량은 약 200t에 이른다.

21. 후베이 우한 황피(湖北武漢黃陂)

<그림 21> 황피 대만농민창업단지 마스터플랜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网) (<http://agri.taiwan.cn/>)

후베이 우한 황피 대만농민창업단지(이하 '황피 대만농민창업단지'이라 함)은 2008년 2월 농업부와 대만사무관공실의 설립 허가로 화중(華中: 중국 중동부의 후베이(湖北)·후난(湖南)·장시(江西) 3성을 포함하는 양쯔강(揚子江) 중류와 그 지류 유역 일대의 지역) 지역 최초로 조성된 후베이 지역 유일한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다. 총 면적은 240km²로 황피구(黃陂區)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 8년 간의 건설 기간을 거친 끝에 대만 자본과 대만의 노하우 도입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에 대한 정밀 가공과 물류 배송, 우량 종자·종묘 생산 및 증식, 농업 관광에 특화된 현대 농업 시범 기지가 기본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화중 양안 농업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었다.

(1) 건설 강화, 투자 환경 최적화

황피 대만농민창업원은 '황피 대만농민창업원 계획 전반'과 관련 특별 계획안을 우선으로 하여 '정부 주도, 기업 주체, 시장 운영'이라는 모델로 12억 위안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핵심 시범지구는 '칠통일평(七通一平)'을 실현하고, 단지 내 공공 인프라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춘다.

(2) 대만기업 유치, 현대 농업 육성

황피 대만농민창업원은 위치, 교통, 자원에서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1 기업 1 대책'의 방법을 채택, 특혜 정책, 우수한 환경, 양질의 서비스로 대만 자본 기업의 발전을 크게 지원했다. 현재 유치된 15개 대만 기업 프로젝트 중 10개 기업이 생산에 들어갔고 2개 기업은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3개 기업은 사전 공사 중에 있다. 협의를 마친 투자액 29,730만 달러 중 4,760만 달러가 실질적으로 조달됐다.

대만기업 프로젝트의 건설과 생산은 현대 농업의 성장을 앞당겨 총 67개의 농산물 가공 기업이 입주하였다. 2015년 농산물 가공 생산액은 15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하였다. 이는 주변 지역 채소·과실, 수산, 화훼·묘목 및 축산 등 1000여km²의 농업 생산 기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적인 선도 작용을 하였다.

(3) 대만의 노하우로 양안 간 협력 촉진

대만농업의 종자와 기술 도입에서부터 대만 생산 경영 관리 시스템 홍보 및 응용, 대만의 건조 기술 도입에서부터 양안 간 콜드체인 물류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양안 간 교류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 과일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도매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2015년 9월 황피 목란산(木蘭山)과 대만 아리산(阿里山)이 자매 결연을 맺고, 10월에는 목란호(木蘭湖)와 대만의 일월담(日月潭)이 자매결연을 맺는 등 협력의 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다. 양안 간 인적 교류는 당 및 정부 관계자 장빙쿤(江丙坤)과 위무밍(鬱慕明)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만 남부 지역 일반 대중에까지 뻗어 나가 860여명의 대만 남부 지역 농민을 포함한 대만 귀빈이 참가하는 대만 비즈니스 및 농업 분야 견학 행사를 총 32회 개최한 바 있다.

22. 윈난 쿤밍 스린(雲南昆明石林)

<그림 22> 스린 대만농민창업단지 전경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윈난 쿤밍 스린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8년 12월 17일 농업부와 대만사무관공실의 설립 허가로 설립된 윈난성(雲南省)에서 유일한 대만농민창업단지다. 단지는 쿤밍시 스린현(石林縣) 루푸가(鹿阜街)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유명 관광지인 스린 관광지구로부터 5km 떨어져 있다. 본 단지는 한 단지 내 여러 지구들을 두는 모델에 따라 계획 건설 되었는데 총 면적은 20만 묘(약 133.33km²)이며, 그중 계획지구 면적은 5.4만묘(약 36km²), 핵심지구 면적은 1.2만 묘(약 8km²)로 '3개 센터', '3개 지대', '7개 분할 구역'으로 나뉜다. '3개 센터'는 창업 서비스 센터와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현대 농업 관광 서비스 센터를 말하며, '3개 지대'는 진품 농업 전시 지대, 농업 생산 시범 지대, 현대 농업 관광 시범 지대를 가리킨다. '7개 분할 구역'은 양질의 고급 특수 과일 산업 구역, 채소 산업 구역, 화훼 산업 구역, 생태 양식 구역, 조경 녹화 구역, 농산물 가공 구역, 창고 물류 구역 등이다.

단지는 2009년 6월 핵심 지역 인프라 건설이 본격 가동된 이래 시와 현의 당 위원회 등 정부의 관심 속에 상급 농업, 대만사무관공실, 과학기술 부처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관리위원회가 과학기술 활용과 농업·관광 융합을 견지한 끝에 아름다운 전원 CBD를 조성하게 되었다. 7억 100만 위안이 계획 구역 인프라에 투자되었으며, 입주한 사업이 46개, 협의된 투자금은 65억 위안에 달한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 약(弱)에서 강(強)으로 부상했다 할 정도로 본 단지는 발전을 거듭하여 국가급 농업단지 건설은 물론 대만과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윈난성 고원지대 특화 농업의 장점과 쿤밍시 레저 관광 여행의 인기, 스린현(石林縣)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로써 '국가농업산업화 시범 기지', '국가 농업 과학 기술 단지', '전국 농촌 과학 보급 시범 단지', '국가급 과학 기술 특별 파견 창업 단지', '국가 현대 농업 과학 기술 단지', '전국 휴양 농업 및 향촌 여행 시범 지역'등의 칭호를 잇따라 얻은 바 있다.

23. 충칭(重慶)

<그림 23> 충칭 대만농민창업단지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중국과 대만 간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충칭시(重慶市) 위원회와 지방정부는 충칭과 대만 간 농업의 교류·협력을 매우 중시하여 충칭시 대만사무관공실과 충칭시 농업국이 과제연구팀을 조직하도록 했고 충칭-대만 간 농업 발전 상황과 자원적 우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02년에 이미 '충칭-대만 간 농업 협력 시험 지역 건설'에 대한 제안이 형성되어 충칭시 농업국과 충칭시 대만사무관공실 및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등은 위 제안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마쳤다. 또한 대만농업시찰단을 맞이하고 충칭 농업 전문가를 조직하여 대만에서의 견학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 제안을 발전시켜 시행해왔다. 그 결과 2006년에는 파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06년 4월 '대만 공업·상업계의 사천 충칭 경제무역 시찰단'이 충칭을 방문한 이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요청에 따라 왕양(汪洋) 전 서기가 두(杜) 전 농업부부장과 소통을 했고 두 부장은 구두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충칭을 방문한 장빙쿤(江炳昆)씨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충칭 '대만농민창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주선에 대한 가능성을 밝히고 대만 농계인사들에게 충칭의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지난 6월 24일 충칭시 농업국과 충칭시 대만사무관공실, 베이베이구(北碚區) 지방정부는 협의를 거쳐 강동화목(江東花木) 및 관광 농업 산업지대를 축으로, 징관진(靜觀鎮)을 중심으로 하는 대만농원을 예비 확정하고 현장답사와 위치 확정을 마쳤으며, 7월 초 국가농업부와 중국 대만사무관공실에 입안 신청을 완료했다. 농무부는 8월 2일 베이베이구(北碚區)에 충칭 베이베이(北碚) 대만농민창업단지 설립을 공식 승인(농기자(農機字) [2006] 제96호, 중기호(中機號) 8382)했다.

충칭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6년 국가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승인으로 설립된 최초 4개 대만농업창업단지 중 하나에 속한다. 본 단지의 부지로 선정된 베이베이구(北碚區) 징관진(靜觀鎮)은 충칭 시내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500년 화훼 재배 역사를 가진 '중국 화목(花木)의 고장'으로 일컬어 진다. 양장신구(兩江新區)와 인접해 있으며, 충칭 해방비

에서 59km 떨어져 있다. 장베이(江北) 국제공항과는 32km 거리, 베이베이(北碚) 시내와는 21km 거리에 있다. 본 단지 산업 계획 면적은 14km²로 이 중 핵심지구가 4km²(도시 건설 용지 1km² 포함), 확장지구가 10km², 보급지구가 200km²이며, 이는 다시 과·채소 시범 구역, 화훼·묘목 전시 구역, 우량 종자 번역 연구개발 시범 구역, 경관 관광 및 관리 서비스 구역, 농산물 가공 시범 구역, 집중 주거 시범 구역과 같이 여섯 개 기능 구역으로 나뉜다. 본 단지는 '대만 위주, 농업 위주'라는 성장 포지셔닝을 견지하고 현대 특화된 관광농업과 농업 첨단 과학 성과를 중점적으로 도입하여 특수 원예와 화훼묘목 전시, 감상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농업 관광 단지와 증식·배양 연구개발, 재배 시범을 한 데 아우르는 도시 교외형 현대 농업 시범 단지를 조성하였다.

현재 충칭 상서룬우현대농업개발유한공사(商社潤物現代農業開發有限公司), 충칭시디커투자유한공사(重慶市地科投資有限公司), 충칭타이이농업개발유한공사(重慶台藝農業開發有限公司) 등 총 22개 기업이 유치되었고 이 중 4개 기업이 대만 계 기업이다. 현재 러브 벨리 웨딩 리조트와 충칭 온천 벨리, 에펠 웨딩 촬영 기지, 대만 자바오(嘉寶) 묘목 기지, 샤오첸(曉晨) 생태 휴양 농장 등의 레저 관광 프로그램이 조성되어 있다.

24.허현(和縣)

<그림 24> 허현 대만농민창업단지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2009년 5월 17일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에 의해 정식 허가·설립된 허현(和縣) 대만 농민창업단지 안후이성(安徽省) 최초 대만농민창업단지로 현재 전국 29개 대만 대만 농민창업단지 중 하나다. 본 단지는 조성 이후 마안산(馬鞍山) 국가농업과학기술단지(핵심 지구), 마안산(허현) 친환경 식품 산업 집약 발전기지, 안후이성 샤오웨이(小微) 기업 창업 기지, 전국 과학 보급 교육 단지, 전국 청소년 농업 과학 보급 시범단지로 잇따라 승인됐다.

허현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안후이성 마안산시와 현 단위에 속하는 리양진(歷陽鎮)에 위치해 있으며 동으로는 창강(長江), 서로는 성(省)급 간선도로 S105, 북으로는 상차오강(雙橋

河), 남으로는 강변도로로 통한다. 총 면적 17.93km² 규모로 ‘1개 타운(친환경 식품 과학기술타운), 4개 단지(친환경 식품 가공 단지, 채소 산업 혁신 창업 단지, 물류 산업 단지, 시장 습지 휴양 농업 단지), 2개 공동체 (진허샤오진(金和小鎮) 생태 공동체 및 주거 공동체, 시장 웨이윈(西江水韻)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1개 지대(창강(長江) 연안선 보호 이용 지대)’등 8개 기능에 따라 구획하고 과학적으로 건설·개발하였다. 채소, 축산, 농업 관련 현대 서비스업 등 3개 산업군을 중점적으로 구축하여 ‘산업과 타운이 일체화되고 3대 산업이 융합하여 생업·생활·생명(三生)을 함께 돌보고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四化) 노선을 동시에 펼치는’ 국가 현대 농업 과학기술 단지, 전국 친환경 식품 가공 산업 기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5. 루장(廬江)

<그림 25> 루장 대만농민 창업단지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합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2009년 초 루장현(廬江縣) 위원회 정부는 ‘루장 현대 농업 종합 개발 시범지구’ 건설을 계획하여 2010년 5월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과 농업부의 허가를 받아 전국 29개 대만농민 창업단지 중 하나(25번째 허가로 설립)인 ‘안후이성 루장 대만농민창업단지’를 설립, 2011년 초 단지 관리위원회도 조직됐다. 최근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성(省)급 현대 농업 시범 지역, 국가급 현대 농업 시범지구 및 핵심지구, 허페이(合肥) 국가 농업 과학 기술 단지 핵심지구, 3A 농업관광지구 등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2013년 10월 허페이시(合肥市)는 연구 끝에 기존 단지에 허페이 루장(合肥廬江) 허우방(合芡蚌) 현대 농업 자율 혁신 시범 지역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2015년 9월, 현(縣) 위원회와 현(縣) 정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국가 현대 농업 하이테크 개발 지역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본 대만농업창업단지(시범 지역)는 52km² 규모로 종합 서비스 지역(핵심지구), 우량 양곡 생산 지구, 화목 전시 거래소, 생태 농원 시범 지구, 새마을 건설 지구 등 ‘5대 기능 지구’로 조성되었다. 이 중 핵심지구는 5km² 면적으로 농업 2~3차 산업을 주로 육성하고 있다. 허페이 루장 허우방(合肥廬江合蕪蚌) 현대 농업 자율 혁신 시범지구는 380km² 규모로 조성된다.

2015년 말까지 5만여 묘(약 33.33km²)의 표준 농경지 건설이 완료되어 ‘획일화된 논밭과

우거진 산림, 편리한 교통과, 서로 이어지는 수자원, 가뭄 대비 관계와 홍수 대비 배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토지경영권 회전율이 90%를 넘어서고 2~3차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지구로 약 3km²의 면적을 조성해 '7통 1평(七通一平)'을 기본적으로 달성한다.

2. 산업 발전 현황

단지는 '안후이 일류, 전국 선두이며 동아시아에서도 유명한 대만 상업창업단지이자 국가급 4A 관광지'와 전국 제3위 현대 농업 하이테크 개발지구를 성공적으로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 단지 세우기' 전략을 실시하고 1~3차 산업이 모두 심도 있게 융합되는 것을 산업 포지셔닝으로 한다. 2차 산업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이끌어 국가급 대만농민창업단지와 국가급 현대 농업 시범지구가 일체화된 발전 노선을 견도록 하는 것을 발전 루트로 한다. 현재 1차, 2차, 3차 산업이 모두 조화로운 발전의 궤도를 걷고 있으며, 단지 내 총 7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중 12개가 대만 기업이고 그 외 식품가공 기업 22개, 대원대소 6개, 레저관광 기업 7개, 고효율 우수 농업 생산 기업 32개, 종합 서비스 기업 5개가 있다. 아울러 농민 양성 전문 조합 18개, 가정농장 26개가 입주해 있다.

26. 광둥 주하이 진완(廣東珠海金灣)

<그림 26> 진완 대만농민창업단지 '북위 22°그린 진주(北纬22°绿珍珠)' 프로젝트 조감도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광둥 주하이 진완 대만농민창업단지는 2008년 국가 농업부와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광둥성 최초의 대만농민창업단지로 광둥성 인민정부와 농업부가 함께 건설한 국가급 현대 농업 단지와 2009년 성(省)급 현대 농업 단지에 포함되었고 광둥성 '주강 삼각주 지역 개혁 발전 계획 강령(珠江三角洲地區改革發展規劃綱要)'과 2015년 광둥성(廣東省)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광둥성(廣東省) 주하이시(珠海市) 가오란항(高欄港) 경제권 핑샤진(平沙鎮)에 위치한 본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시내에서 40km, 마카오와 45km, 공항까지 18km, 주하이항과 8km 거리에 있고 서부 해안 고속도로, 주하이항(港) 고속도로, 장주(江珠) 고속도로, 공항 고속도로, 광주(廣珠) 철도가 지나고 교통망이 사통팔달하여 입지적 우위가 매우 뚜렷하다.

총 4.5만 묘(약 30km²)로 계획된 본 단지는 7,655묘(약 5.1km²)의 핵심지구와 약 37,000묘(약 24.67km²)의 보급지구로 나뉜다. 핵심지구 1차 개발 부지는 5,000묘(약 3.33km²) 규모로 8년 간의 건설을 거쳐 토지 자원 통합이 완성됐고 인프라 또한 나날이 개선되어 대만 농민과 대만 농기업의 주장삼각주(珠三角: 주장 하구 광저우, 홍콩, 선전,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인기 투자지가 되었다. 핵심지구 2차 개발 부지 면적은 약 2,655묘(약 1.7km²)로 다시 2개 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북위 22°그린 진주(北緯22°綠珍珠)'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전용면적 1,755묘(약 1.17km²) 규모의 부지로 취미로서의 농업, 과학 기술 농업, 친환경 농업, 미래(영속)농업을 주제로 하여 고효율, 환경보호, 생태, 레저, 컨퍼런스, 휴가, 체험을 한 데 아우르는 세계 일류 농업 단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2구역은 '대만농업창업단지 과학 기술 혁신기지'로 전용면적은 900묘(약 0.6km²)에 달한다. 과학기술 혁신 전시, 과학연구 테스트, 산학 연구 시범 등 3대 기능성 지구를 계획하여 기술혁신, 품목혁신, 시설혁신, 산업혁신, 서비스혁신, 관리혁신의 농업첨단기술의 집결, 인큐베이팅, 확산 및 성과전환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광둥(주하이) 현대 재배 발전 센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업종 선도·성과 인큐베이팅·전시 교역을 한 데 아우르는 글로벌 현대 재배의 '요람'을 건설하고자 한다.

27. 광둥 메이저우 메이장(廣東梅州梅江)

2010년 5월 농무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설립 허가로 설립된 '광둥 메이저우 메이현(縣) 대만농민창업원'전국 29개, 광둥성(省) 3개 국가급(級) 대만농민창업단지 중 하나다. 2015년 1월 농무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은 행정 계획 조정과 기존 핵심지구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광둥 메이저우 메이현(縣) 대만농민창업단지'를 '광둥 메이저우 메이장(梅江) 대만농민창업원'으로 변경 승인하고 핵심지구를 메이장구(梅江區) 시양진(西陽鎮)으로 조정하였다. 기타 7개 현(시와 구)을 기능성 보급지구로 조정하여 하나의 핵심지구와 7개의 보급지구가 함께 발전하는 '칠성반월(七星伴月)' 구도로 개편했다. 본 대만농민창업단지 핵심지구는 총 계획면적 10,800묘(약 7.2km²) 중 산지면적이 8,800묘(약 5.87km²), 논·밭 면적이 2,000묘(약 1.33km²)로 찻잎, 원예, 농산물 정밀 가공 등의 산업을 포지셔닝하여 발전시키고, 메이장-대만 간 농업 박사 협력 공작소, 메이저우 농업 정보 센터,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센터에 위탁하여 관광농업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단지 전체의 특화 농업 산업까지 확대하여 발전시켰다. 현재 대만농민창업단지 핵심지구에는 '1개 센터, 4개 기지, 1개 플랫폼(1개 센터: 메이저우시(市)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센터, 4개 기지: 관광농업 시범 기지, 대만 우량 묘목 이식 관광 및 종묘 증식 시범 기지, 고산 유기농 찻잎 재배 시범 기지, 모링가 재배 시범 기지, 1개 플랫폼: 전 자상거래 플랫폼)이 조성되고 있다. 본 단지에 입주하여 현대농업에 투자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기업 30여 곳 중 올해 대만계 기업 5곳이 추가되었고 총 2,200여만 위안이 투자될 계획이다. '앨리스 농장', '농산물 정밀 가공 기지', '고산 유기농 찻잎 재배 시범 단지', '메이장-대만 간 농업 협력 시범 단지', '메이저우-대만 문화 혁신 산업 단지', '진귀 묘목 재배 시범 단지' 등의 사업을 규모 있게 발전시킬 예정이다.

본 대만농민창업단지는 핵심지구 건설은 물론 대만농민창업단지 시범기지 육성 및 발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6년 메이저우 인민정부 심사 결과, 평위안현(平遠縣)의 메이저우(梅州)와 신다(信達) 농·목업 유한공사, 싱닝시(興寧市) 치귀취(奇果聚) 농업 발전 유한공사 등 2개 회사를 4차 '메이저우시(梅州市) 대만농민창업단지 시범기지'로 승인했다. 현재

시 전역 11개 시범기지가 운영되고 있어 시범 가동 효과가 매우 눈에 띈다.

28. 광저우 산터우 차오난(廣東汕頭潮南)

<그림 27> 차오난 대만농민창업단지 전경



자료: 해협양안 농업협작망(海峽兩岸農業合作網) (<http://agri.taiwan.cn/>)

광둥 산터우 차오난 대만농민창업단지(이하 ‘대만농민창업단지’라 함)는 2008년 12월 17일 국가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의 설립 승인을 거쳐 2010년 건설을 시작하였다. 단지는 차오난구(潮南區) 징두진(井都鎮) 고속도로 남쪽 연해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총 계획면적 5,500묘(약 3.66km²) 중 핵심지구가 2,000묘(약 1.33km²), 보급지구 면적이 약 2만묘(약 13.33km²)에 달한다. 단지 지형이 고르고 교통이 편리하며, 현지 산터우 지역 내 블럭형(連片: 마을 단위 외주 형식 경작의 관리 및 비용적 이점을 위해 조각조각의 논밭이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 큰 농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논밭 구획 방식) 논밭 면적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1. 단지 건설 발전 상황

본 대만농민창업단지가 세워진 토지는 원래 인프라 시설이 거의 없던 황무지였다. 2010년 건설 시작 이후, 국가 농업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및 성청(省廳)의 중시 및 지원, 각급 당 위원회 정부와 관련 부서의 정확한 지도 하에 단지 총 계획안에 따라 산터우-대만 간 농업 협작을 전제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특색 있는 농업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인프라 개선부터 착수하여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단지 건설을 가속화하여 입주 기업이 현대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했다. 각 항목의 업무를 질서 있게 개진하여 산터우-대만 간 농업 협력 선행 시범 단지 건설에 노력을 기하고 우수한 종합적 효과를 얻어 광둥성과 대만 간 농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현재 산터우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차오난구(潮南區)를 넘어 산터우시(汕頭市)에서도 유명한 현대 농업 산업 단지로 자리잡았다.

(1) 서비스 발전 조치 시행

시·구 등의 간부들은 대만농민창업단지 건설을 줄곧 중시해 왔으며, 대만농민창업단지 건

설 및 발전을 위한 자금을 별도 조성하여 3년 연속 실행한 결과 해마다 총 1,000만 위안을 조달 받아 대만농민창업단지 내 인프라 건설과 기업 발전 지원에 사용하였다. 대만농민창업단지 설립 초기에는 구청장이 팀장을 맡는 대만농민창업단지 건설 사업 지휘팀을 조직하고 그와 동시에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 위원회도 구성하여 정과급(正科級: 중국 공무원 직무등급 중 하나. 총 27개 급(級) 중 16-22급에 상당) 사업 부서로써 구체적으로는 단지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2015년 2월, 구 위원회와 구 정부의 검토 끝에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 위원회를 징두진(鎭) 위원회와, 진(鎭) 정부로 이관하고 징두진 진장(長)이 대만농민창업단지 관리위원회 주임까지 겸임하도록 결정하였다. 관리위원회 인수 후 여러 항목의 서비스 조치를 시행하여 단지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2) 단지 발전계획 제정

계획을 선행하는 것을 견지하여 2009년 화남농업대학에 대만농민창업단지 건설 계획 전반 편성을 의뢰하였다. 2015년에는 구이린(桂林) 징웨이(經緯) 관광 계획 유한공사에 의뢰하여 대만농민창업단지 컨셉 관광 마스터 플랜 설계와 주요 시즌 상세 계획을 세웠으며, 2016년 5월 구청에 보고하여 시행 승인을 획득했다. 수준 높은 출발과 계획으로 대만농민창업단지는 '정밀 농업, 생태 농업, 효과적인 농업'을 눈에 띄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건설 이념에 따라 '농업의 집약화, 표준화, 산업화, 클러스터화' 경영 이념을 견지하고 '5개 지구, 2개 지대, 1개 센터'의 발전 구도를 중심으로 건설을 시행하고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해안 생태 농업 관광 단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인프라 건설 추진

지난 몇 년 간 단지는 1억여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단지 내 도로망과 전력망, 방풍림, 배수관개 시스템 등 부대시설 건설과 '수·비(물과 비료) 일체화', 토양 개량, 지력 육성 등 농업 인프라 공사를 잇따라 전력 추진하면서 핵심지구에 2,000묘(약 1.33km²)에 달하는 양질의 농지를 건설하여 농업 생산 여건을 향상시켰다. 2015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성(省)급 현대 농업 건설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4,800만 위안이 투자되었고 이는 총 투자금에서 88.9%(이 중 이미 투입된 재정자금 1,526 위안, 성에서 조달한 자금의 76.3%를 차지, 기업 투자 3,000만 위안 이상)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단지 관광 도로망 녹화사업, 가로등 명도 강화, 기능지구 레저 관광 전망대, 배수구 보수공사, 대만농민창업단지 농산물 거래 시장 보완 공사, 단지 급수관·대로변과 농로를 관통하는 급수관 및 배수구 건설 사업, 옥외 홍보 광고물 등 일련의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되었다. 둘레길 및 테마 광장 조성 등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단지 출입문 및 복합 서비스 센터 공사 등이 입안과 재정 심사를 마치고 입찰 절차에 있다. 단지 내 하드웨어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문화적 창설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가로등에 문명 깃발을 달고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매일 청결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하여 깔끔하고 위생적인 단지를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대중으로 하여금 징두(井都)의 풍광을 맛볼 수 있게 하는 휴양 관광지로써 관광농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4) 현대 농업단지를 조성

첫째, 완벽한 투자 환경을 우선 구축해두고 투자를 유치한다. '비즈니스를 통한 투자 유치', '외부로 진출, 안으로 유입' 등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대만농민창업단지에 대해 홍보 프로모션 및 투자유치 사업을 전개한다. 지금까지 8개 대만 농업기업을 유치하여 1억 8,000만 위안의 투자를 받아 연간 7,000여만 위안 규모의 생산액을 창출하고 있다. 이 외 현재 4개 프로젝트가 협의 중에 있다. 2015년 9월 말 대만농민창업단지에 관리위원회와 차

오난구(區) 농업국은 대만농민창업단지에 ‘국경절 맞이 산터우-대만 간의 정’이라는 명칭으로 차오난구(區) 제1회 농산품 관측회를 열고 40개 산터우-대만 농업기업을 조직하여 현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 및 관련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여러 대만 상인들과 현지 대중들이 단지를 둘러보고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안 대중 간 문화 교류와 농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켰다. 2015년 11월 평유에社(豐樂公司)와 더싱타이룽(德興台隆)등 2개 기업이 참가한 제13회 중국 국제 농산품 교역회에서 평유에社의 레드 용과가 CCTV의 특집 인터뷰에 소개되었고 2016년 11월 평유에社의 ‘남국가인(南國佳人)’이라는 품종의 레드 용과는 광둥성 제2회 ‘10대 명품’농산품에 이름을 올렸다.

둘째, 혁신을 장려한다. 기업의 신기술, 신품종, 신설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대만 등 농업 발달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농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만 유명 농산품 30여 종이 유입되었고 전자동 절수 분출 설비 20여 대(세트), 양돈 우량품종 증식 기술 설비 20여 대(세트)가 도입되었다.

셋째, 벤치마킹이다. 입주 기업이 현재 농업 기업이 성장 포지셔닝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현대 기업의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무공해 생산을 시행함으로써 ‘온라인+’를 지향하는 현대 농업을 발전시켜 기업이 발 빠르게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현재 본 단지는 채소, 과일, 화훼 묘목 재배, 가축 사육, 수산 양식, 관광 농업 등 분야를 취급하고 있고 3개의 선두 농기업과 국가급, 성(省)급, 시(市)급 기업을 각 하나씩 배출했다. 이들 중 본 단지 중점 기업인 더싱타이룽 생태 농업 유한공사(德興台隆生態農業有限公司)는 농업 산업화 국가 중점 선두 기업인 광둥 더싱 식품 주식회사(德興食品股份有限公司)의 자회사로, 국가 핵심 양돈장과 전국 양돈 육종 연합회, 성(省) ‘장바구니 먹거리’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다. 본 회사는 스마트화된 선진 설비를 핵심으로 하고 유럽 스탠다드를 채택한 공예 시스템, 에너지 감축 환경 보호, 동물복지 사육, 스마트형 고효율 현대화 스마트 양돈장 건설을 위해 2015년 더싱(德興) 북유럽 농장 개설을 시작한 이후 4,000만 위안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고 2016년 준공을 마쳤다. 뤼두 재배 실업 유한공사(綠都種植實業有限公司: 광둥 더싱 식품 주식회사의 자회사)는 2016년 더싱 생태 체험 단지(德興生態體驗園)와 더싱(대만 농업) 국제 양돈 학원(德興國際養豬學院) 건설을 계획하고 총 2,000만 위안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학교와 기업 간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고차원의 체험식 현대화 양돈 기술 인재 양성 기지를 만들고자 한다. 홍마오 재배 유한공사(洪茂種養有限公司)는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유기농 생활을 함께 창조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하는 과채 재배 기업으로 성(省)급 농업 선두 기업이자 성(省)급 ‘장바구니 먹거리’ 생산 기지에 속한다. 평유에 농업 과학 기술 유한공사(豐樂農業科技有限公司)는 우리 시 대만 용과 중점 생산기지로서 성(省) 내 표준화·시설화 농업생산 시범기지이자 시급(市級) 농업 선두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건설 중인 성(省)급 현대 농업 ‘오위일체(五位一體)’ 시범기지 프로젝트는 기업을 현대화·과학기술형 발전의 지름길로 이끌 것이다. 홍류 생태 농업 유한공사(泓柳生態農業有限公司)는 대만산 특수 과일 20여 개를 도입, 60묘(약 0.04km²) 규모로 블럭형(連片: 마을 단위 외주 형식 경작의 관리 및 비용적 이점을 위해 조각조각의 논밭이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 큰 농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논밭 구획 방식) 백향과 재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특색을 갖춘 관광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형마오 농업 과학기술공사(恆茂農業科技公司)가 연구 개발한 고수위 양식장 수산 양식 기술은 지역 내 새우 양식 기술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